



무대 공 동산



2026.02.08. 대구제일교회 김준호 목사 위임예식

구십춘광(九十春光)

춘 삼 월(春三月)

벚꽃은 나비 되어 바람에 날고

산마다 진달래는 참꽃이라 단아(端雅) 하구나

꽃향기 따스한 가지에

벌은 꽃술을 빨고 날갯짓을 하는데

봄은 수줍은 듯 개울 따라 흘러간다

고개 넘어 산촌(山村)에서 찾아온 님

봄 그리워 떠났다고

버들강아지가 속삭여 준다

봄은 여긴데 떠난 사람아

구십춘광(九十春光)이 영글인 봄을

달항아리 불룩하게 담그어 보자구나



이상원 성도

시 이야기

이상원 시인은 37년생으로, 올해 88세가 된 제일교회 성도님입니다. 투고하신 '구십춘광'을 받아드는 순간, 비범한 시인임을 단번에 느꼈다. 9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서 자아내는 시구마다 자연과 계절을 즐기는 노(老)시인의 유유자적(悠悠自適)이 부럽도록 넘쳐난다.

구십춘광(九十春光)은 단순히 봄의 90일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젊은 정신과 활력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인데, 노(老) 시인에게서는 잘 영글은 세월과 같이 보인다. 시인에게는 분명 그 연세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과 자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벚꽃은 나비 되어 나르고, 벌은 꽃술 빨며 날갯짓하니 역시 봄은 봄이다. 구십춘광이 영글은 봄이다. 아! 그 봄을 달항아리에 불룩하게 담그는 시인은 봄에 떠난 사람이 그리워 그 봄을 잘 빚어 오랫동안 즐겼으면 좋겠다고 노래한다.

일찍이 중국의 도연명(陶淵明)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는 시로 유명했다. 노(老) 시인에게서도 그와 같은 품격이 절로 풍겨나는 시(詩)다. 시인의 시를 다 읽고 나면 한 시구가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다.' (이주하편집위원)

권두언	02	김준호 위임목사	처음도 나중도 사랑입니다
홍보출판부 취임사	03	홍정우 장로	『물댄동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가족소개	04	새가족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새가족 글	06	시찰리 니브와	감사로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신임 사역자 인사	08	정몽실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를 꿈꾸며...
	09	계성은 전도사	틈 속에 복음의 씨앗을
	10	최창은 전도사	“행복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며...
신임 부서장 인사	11	신임부서장	신임부서장 인사말
겨울성경학교 소감문	16	김상민 안수집사	[초등1부] 멋진 세상을 만들어요
	17	배성진 목사	[초등2부] LIGHT ON
	18	김영훈 집사	[초등3부] 우리는 복음의 증인~
겨울수련회 소감문	20	송승빈 학생	[중등부] 하나님, 예배, 친구 되짚어보기
	21	손재현 안수집사	[고등부] Love & Disciple
청년코너	22	홍보출판부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품공동체 사역팀을 소개합니다 I
유아부 소개	26	김현진 목사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꼬마 빛’들의 이야기
프로그램 소감문	28	군학원선교부	성명여중 생명존중 · 생명사랑 프로그램 소감문
감사사	30	이문희 은퇴장로	2025년 추수감사절 감사사
향존직 대표 퇴임사	32	임병규 은퇴장로	저를 보내신 이의 뜻,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가문	34	홍보출판부	
해외선교	35	장규현 목사	선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36	양인모 선교사	2026년, 몽골에서 보내는 감사의 편지
	38	이재환 장로	함께 열매 맺는 기쁨, 선교는 동행입니다
목상 칼럼	44	황천호 목사	목직함
건강 칼럼	46	최용민 집사	걷기만 잘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5분독서	48	홍보출판부	The 리턴: 예수께로 돌아가자
기독언론기사	50	홍보출판부	'MBTI' 참고 도구인가, 신앙 가두는 틀인가
평신도 신앙 논단	52	우정복 원로장로	예배는 “드림”이다!
생활법률칼럼	55	곽수영 집사	전세사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탐방 취재	58	홍보출판부	세상 속으로 흐르는 예배의 통로, 카페 '디디씨돌담커피 경대북문점'을 가다
성도의 글	60	최무진 은퇴장로	4남선교회 야외예배 (2025년 하반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을 피크닉
	62	신기수 은퇴장로	믿음의 나라 미국 정치의 중심 워싱턴 DC를 걸어서 돌아보고..
	64	변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67	권중웅 명예집사	크리스천의 인생관(人生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起點)으로 변화했다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69	홍보출판부	



김 준 호 위임목사
(대구제일교회)

처음도 나중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로 옮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 대구제일교회는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 삶 속에 세워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아픈 이를 낫게 하고, 더러는 누군가를 살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몸소 안아주시고, 때로는 진흙을 이겨 눈에 펴 발라주셨으며, 몸을 낮추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행실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 사회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사랑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퍼주며, 그 사랑 속에 묻어난 복음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은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함으로써 생명과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교회와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2)

화해자요 구속자로 세상에 오신 주님처럼, 2026년 한 해, 우리의 사랑도 세상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도, 나중도, 사랑입니다! 함께 사랑의 실천을, 우리 삶 속에 세워나갑시다!

『물댄동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홍정우 장로
(홍보출판부 부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족한 제가 대구제일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고, 우리 교회의 소중한 간행물인 『물댄동산』의 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세워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댄동산』은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매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소망을 품고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신앙의 자양분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서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 『물댄동산』이 그 이름처럼 마르지 않는 샘 곁의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 에세이와 성도님들의 진솔한 간증을 담아, 읽는 이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고, 기록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댄동산』이 우리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한 초청장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문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전도 사역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사역들, 사랑의 나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정성껏 담아내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댄동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은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홍보출판부원 모두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물댄동산』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가족들의 삶에 『물댄동산』처럼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경옥 _ 4교구 34구역



이선화 _ 4교구 10구역



김효주 _ 4교구 10구역



사무 모아나 _ 1교구 25구역



이 인, 홍희선 _ 2교구 15구역



오현우 _ 4교구 25구역



주형철 _ 1교구 11구역



김종열, 서옥희 _ 4교구 13구역



이보명 _ 1교구 12구역



박 준 _ 2교구 19구역



이수환 _ 4교구 25구역



민삼민 _ 3교구 4구역



최미랑 _ 2교구 27구역



이상현 _ 3교구 3구역



박경옥 _ 1교구 2구역

Welcome! New Family



모와일 참바 _ 3교구 3구역



권인대 _ 3교구 1구역



박창민 _ 3교구 19구역



치무웨메 제레마야 _ 1교구 25구역



전병수 _ 1교구 14구역



박동언, 성규림 _ 3교구 25구역



박영실, 정춘자 _ 4교구 9구역



박진석 _ 4교구 9구역



박봉숙 _ 4교구 9구역



김현준 _ 3교구 4구역



최문규 _ 4교구 29구역



채경자 _ 1교구 29구역



태현정 _ 4교구 34구역



김창섭, 정경미 _ 4교구 19구역



정명희 _ 3교구 17구역

감사로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시찰리 니브와
(평신도, 외국유학생)

2026년이 시작되는 지금, 저와 대구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잠비아 유학생 공동체를 대표하여 우리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여정은 같지 않았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이유, 그리고 다른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에 처음 한국 땅을 밟으며 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불확실함도 있었습니다. 언어, 문화, 음식, 기후, 그리고 학업 환경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희망과 꿈을 품고 떠났지만,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견디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도전과 모든 축복 속에서 저를 인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각자의 도착 시기는 다르지만, 이 고백은 우리 잠비아 유학생 모두가 함께 나누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유학 생활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학

업의 무게를 느꼈던 순간도 있었고, 잠비아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며 외로움이 크게 다가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 추운 겨울 적응, 혹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찾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불안할 때는 평안을, 외로울 때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대구제일교회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우리의 영적 가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회복지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환영과 성도님들의 친절, 그리고 매주 함께 나누는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장했고, 위로를 받았으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잠비아 유학생들에게 이 교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함께 승리를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Sichali Nivwa

As we reach the end of another year, I would like to take this moment to share a reflection on behalf of myself and the Zambian student community here at Daegu First Presbyterian Church. Our journeys have not all been the same; each of us arrived in Korea at different times, for different reasons, and with different expectations. Yet when we look back, we can all see one unchanging truth: God has been faithful to us throughout every step.

For me personally, my journey began in 2022 when I first set foot in Korea. It was a season filled with both excitement and uncertainty. Everything was new-the language, the culture, the food, the climate, and even the academic environment. I left home with hopes and dreams but also with questions about how I would adapt, survive, and grow in a foreign country. Now, almost four years later, I can clearly testify that God has guided me through every challenge and every blessing. And although the timeline of our individual arrivals may differ, this testimony is shared among many Zambian students who have come before me and after me.

Studying abroad is a profound experience. It stretches us, shapes us, and forces us to trust God in deeper and more personal ways. There were moments when we felt the weight of academic pressure. There were moments when the loneliness of being far from Zambia felt overwhelming. Many of us struggled with learning Korean, adjusting to the cold winters, or simply trying to find where we fit in. But in those difficult moments, God provided strength. He placed the right people around us. He gave us peace when we were anxious and comfort when we felt alone.

One of the greatest gifts God has given us during our time in Korea is Daegu First Presbyterian Church. This church has become more than just a place of worship-it has become our

spiritual home. Through the warm welcome of the pastors, elders, stewards and the kindness of the church members, and the fellowship we experience each week, we have found a community that truly reflects the love of Christ. It is here that we have grown, received encouragement, and learned to walk our faith with greater maturity.

For many Zambian students, this church has been a place where burdens were lifted and hope was renewed. We have prayed together, worshiped together, struggled together, and celebrated victories together. Even though we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we have been united by the love of God that is present in this community. As international students far from home, this support has been invaluable.

On behalf of all Zambian students, I want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Daegu First Presbyterian Church. Thank you for embracing us with open arms and treating us as family.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s we navigate language barriers, your generosity in times of need, and your encouragement in moments of difficulty. Your love has strengthened our faith and reminded us that the body of Christ is truly global.

As we look toward the coming year, our prayer is that we continue to grow stronger as a community. We desire to serve God faithfully, to support one another, and to be a light in our universities and workplaces. We pray that God continues to use this church as a place where students from all nations can experience His grace. No matter when each of us arrived in Korea, we stand united in the belief that God brought us here for a purpose. And we trust that the same God who has carried us this far will continue to guide us in the years a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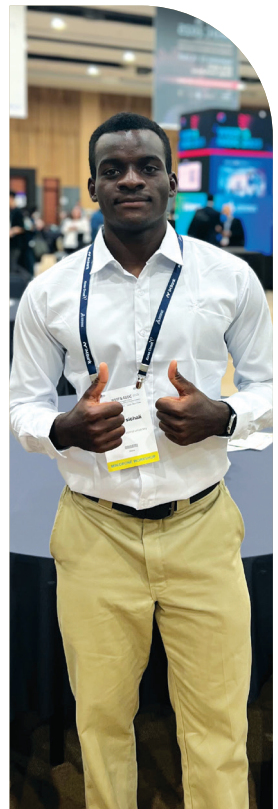
May God receive all the glory for the journey behind us and the journey still to come.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의 사랑과 돌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잠비아 유학생 모두를 대표하여, 대구제일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족처럼 맞아 주신 것, 언어 장벽 속에서도 인내해 주신 것, 필요할 때 베풀어주신 너그러움, 어려울 때 건네주신 격려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전 세계에 걸쳐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고, 서로를 돕고,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한국에 도착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여정도, 앞으로의 여정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문단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를 꿈꾸며...



정몽실 목사
(2교구 담당)

안녕하십니까 1월 첫째 주 새로 부임한 정몽실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의 모교회인 대구제일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그에 따른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배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이름은 한글 이름이 아닌, 한자입니다. 꿈 **몽(夢)**, 열매 **실(實)** '꿈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아직도 태몽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지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대구 충성교회가 모 교회입니다. 저는 대구 충성교회에서 청년부 전임 간사 및 교육 전도사를 했었고 졸업 후에는 서울 무학교회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 후 울산 강남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동부교회에서 전임 사역 후 대구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대구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저희 가족은 4식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조은경이고 현재 사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이름은 정이든입니다. 20년생이고, 이제 7살이 됩니다. **이든은 한글 이름이지만, '에덴(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 순우리말로 '착하고 어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둘째는 딸이고 이름은 정이음입니다. 24년생이고, 이제 3살이 됩니다. **이음도 한글 이름이지만, '기쁨 이(怡)', '소리 음(音)'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날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개인화되고 있는 이때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 모두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집에서 육아 중입니다. 3월이 되면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다니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무엇이나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적응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얕'이 '깊'으로 이어지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대동산**

틈 속에 복음의 씨앗을



계성은 전도사
(초등 1부 담당)

살림! 2026년부터 대구제일교회 초등 1부를 섬기게 된 계성은 전도사입니다.

먼저 대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심어져 시작된 대구제일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세워 주신 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10여 년간 유치원 교사로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늦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시고 사역을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저를 세워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틈 속에 복음의 씨앗을”이라는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 교회를 나오는 길에 시멘트 계단 사이의 작은 틈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생명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틈을 사용하셔서 모래가 쌓이게 하시고 씨앗을 심으시며,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끝에 저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틈 가운데 복음을 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복음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 모양의 틈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초등 1부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그 틈을 매우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구 지역 초기 선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대구제일교회가,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족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틈 가운데 복음을 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제일교회 초기 사역 가운데 베어드 선교사님을 통해 심어졌던 복음의 씨앗처럼, 작은 종 또한 복음의 틈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대구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대표

“행복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며...



최창은 전도사
(중등부 담당)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구제일교회 중등부를 섬기게 된 최창은 전도사입니다. 귀한 공동체에 저를 불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께 첫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
는 아내와 고등학생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
라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아이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
보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가르침보다 공감의 먼저일 때가 많다는 것
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배움들이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는 제 사역의 태도와 마음에도 많은 도움
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등부 아이들의 신앙이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행복한 신앙”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삶의 뿌리가 단단하여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길 바랍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
만, 훗날 아이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 말씀 한 구절, 따뜻한 기억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
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동행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관
심이 중등부 아이들에게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
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과도 같은 마음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신앙을 함께 세
워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
음 세대를 세워 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 기쁨과 행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물면동산

신임부서장 인사말

친교봉사부



이현우 장로

안녕하십니까? 올해 친교봉사 부장으로 섬기게 된 이현우 장로입니다.

친교 봉사부는 교인들의 친교주관, 교회 식당 운영관리, 전교인 체육대회, 교구 만남의 날, 교인 구제 및 국내 구제 활동을 통해 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역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제일의 가족들의 손길이 모여 함께 운영되는 교회의 꽃이라 자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봉사 손길이 급격히 줄어들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 여건에 맞는 시간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오셔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전 교인이 행복한 맛나의 교제에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당은 항상 열려 있으니 “전교인의 돼지화” 🐷 에 꼬~옥 동참하시길 ♥

♣ 봉사시간 : 토요일 10:00 ~ 12:00 (재료 손질), 주일 08:30 ~ 13:30(식탁 정리, 배식, 설거지 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부



손웅기 장로

"당신이 멈춘 그곳에서 누군가의 희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부 부장 손웅기 장로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부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세 가지 사랑의 통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 생명 나눔: 토요일 무료급식으로 노숙인분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웁니다.
- 안식 나눔: 제일평화의 집을 운영하며 지친 이들에게 쉼을 선물합니다.
- 이웃 나눔: 교회 주변 어려운 주민들을 든든한 후원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토요일 무료급식은 정성스러운 도시락 나눔을 위해 준비부터 전달까지 많은 일손이 필요하여, 성도님들의 돕는 손길이 무엇보다 간절합니다. 사실 꿀맛 같은 휴식을 뒤로하고 봉사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희생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시락 한 개가 주님의 온기로 기억되도록 꼭 함께해 주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함께 걸겠습니다.

주차봉사부



장순기 장로

샬롬! 2026년 주차봉사부를 맡은 장순기 장로 입니다.

주차봉사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만나는 '교회의 첫 얼굴'입니다. 눈과 비,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환영의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주차 안내를 넘어, 예배의 시작을 기쁨으로 열어 드리는 섬김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만큼 봉사자들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봉사부에서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교회에 오래 머무시는 성도님들은 동산병원이 나 신명고등학교에 주차해 주셔서 교회 주차장의 활용성을 높여 주십시오. 교회마당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옥상주차장은 75세 이상의 성도님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이중 주차시 중립주차 해주시고, 예배 후에는 신속한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배려가 모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환경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회서기



강영우 장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댄동산 111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6년~27년 당회 서기를 맡은 강영우 장로입니다.

당회가 교인들과 소통하며 화합하여 김준호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멋진 제일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분의 장로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며 봉사하여 주일마다 찾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말에는 평균 출석교인(1부~3부) 2000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교회 교회표어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홍보출판부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이정목 장로

안녕하세요. 올해 감사위원장으로 섬길 이정목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위원장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사명은 살림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섬김이라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사랑과 기도와 공정함과 투명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모든 부서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부



곽정우 장로

총무부는 교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인사 관리, 문서 및 기록 보존, 각종 계약과 물품 구매, 자산 및 비품 관리, 차량 운영 등 교회 운영의 기초 체계를 담당합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 조정과 행정 지원을 통해 모든 사역이 질서와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행정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를 세워가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성도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섬기는 총무부가 되겠습니다.

부장 : 곽정우 장로, 부부장 : 김근섭 안수집사

재정부



이재정 장로

안녕하십니까? 올해 재정부장으로 섬기게 된 이재정 장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 아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신이 이 귀한 비전을 이루는 든든한 동력이 되도록,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재정부는 단순히 헌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넘어, 드러진 예물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고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지혜롭게 살림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섬김 위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부



권순철 장로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예배부장 권순철 장로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로비에서 성도님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선한 영감과 은혜로 드러질 수 있도록 예배 분위기를 잘 정돈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신앙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며 영적 예배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예배자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고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일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부



이상녕 장로

할렐루야~! 2026-2027년 찬양부 부장을 맡게 된 이상녕입니다.

찬양부는 금년 “소리로 하나 되어 사랑을 전하는 찬양부”라는 표어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소리로 하나 된 화음을 만들어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온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부는 예배를 돕는 갈릴리, 호산나, 시온, 여전도회 4개의 찬양대와 엘피스, 수요찬양, 금요찬양, 2부찬양 4개의 찬양팀, 그리고 특별찬양 및 위로예배를 섬기는 아이노스, 글로리아, 주드림, 조가, 제일남성 6개의 중창단(찬양단/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기 예배는 물론 절기 행사 및 다양한 교회 행사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부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섬김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통신부



이금환 장로

영상통신부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통신부는 예배의 현장을 영상과 음향, 동시통역, 홈페이지와 행정전산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성도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도 말씀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소리 하나, 화면 하나에도 실행위원들과 함께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예배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양부



양홍철 장로

안녕하세요. 2026년도 목양부를 맡게 된 양홍철 장로입니다.

목양부의 주요 업무는 신앙 소그룹(순, 구역) 활동을 지원하고, 새가족부를 수료한 새 교우들의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한 일대일 동행 프로그램(10주 과정)을 운영하며, 기타 평신도 신앙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교역자들을 도와서 성도들의 건강한 영성과 신앙 성숙을 도모하므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1부



신승환 장로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2027년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승환 장로입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예배에 더욱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육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우리 교육부 모든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 2부



한신희 장로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 2부 신임 부장으로 섬길 한신희 장로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돌보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등부! 입만 뿡긔해도 감사한 고등부! 삶의 치열한 현장에 마주한 청년 1, 2, 3부! 다양한 변화의 색깔을 나타내는 부서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예배의 회복과 영적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고민을 응원하며, 교육 2부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가족부



최호진 장로

대구제일교회의 얼굴인 새 가족부를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거룩한 부담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찾은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품으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어색하고 낯설어하는 새 가족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행복하게 정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해외선교부



이재환 장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해외선교부장을 섬기게 된 이재환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해외선교부는 단순히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거친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선교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선교부



김철우 장로

국내선교부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된 김철우 장로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는 말씀처럼, 복음 전파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국내선교부는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기관 선교: 병원, 교도소, 경찰서 등 복음이 절실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실천적인 전도: 소년원 세례식, 교도소 방문 예배 등 현장 중심의 행사와 각 선교단체, 기관의 재정 후원 및 지원을 하고, 선교 강좌를 기획하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상의 전도: 매주 진행되는 수요 전도를 통해 우리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복된 여정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료선교부



박문호 장로

샬롬~ 올해부터 의료선교부 부장으로 섬기게 된 박문호 장로입니다.

저희 의료선교부는 교회 내 의료 상담 및 응급조치(매주일 기념관 3층 가장 안쪽), 국내 외 선교(올해는 7월 필리핀 예정) 및 사각지대 환자 지원, 이주민 봉사(경산 진량 뽕엿교회) 등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의료선교부에는 25명의 최고의 전문의들께서 매주일 순환 상담을 하고 계시고, 최고의 베테랑 간호사 약사분들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니, 평소 병원에 가서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우셨던 분들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5~6월경 목사님과 함께 교회 내 선교 훈련 프로그램도 계획 중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선교부원으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의료선교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학원선교부



주기성 장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

- 군선교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기도해주시고, 장병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군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학원선교

감수성이 풍부한 중, 고등학생들의 꿈을 지지하고 희망을 심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하는 생명존중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실무위원, 실행위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

멋진 세상을 만들어요



김상민 안수집사
(초등1부 부장)

2026년 새해를 맞아 초등1부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였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는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이번 성경학교의 교육목표는 첫째,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배운다.

둘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운다.

셋째,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이들**로 자란다. 이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겨울성경학교 첫째 날, 아이들이 오기 전부터 모든 교사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또한 몸이 좋지 않았던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찬양과 말씀을 인도하신 전도사님은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에너지가 넘쳤고, 아이들은 그 인도에 따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했다.

말씀 1 “**함께 기뻐해요**”(삼상 17:55~58, 18:6~11)를 통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며, 질투와 시기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말씀에 깊이 집중하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라고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공과시간과 활동을 통해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통해, 서로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아이들은 큰 기쁨으로 목사님을 맞이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 해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섬김 속에 아이들은 사랑을 먹는 시간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오후에는 말씀 2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려요**”(잠 24:29)를 통해,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며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모습을 배우며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웠다. 풍선을 이용한 협동 활동을 통해 ‘멋진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도 교사들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아이들이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 3 “**사람들을 돌아봐요**”(빌 2:4)를 통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배우고, 조별 기도회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박 2일의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찬양과 말씀, 공과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헌신으로 섬겨주신 전도사님과 모든 초등1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 기간뿐 아니라 2026년 한 해 동안도 초등1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앞으로도 풍성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글을 마칩니다. | **물뎌동산**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

LIGHT



배성진 목사
(초등2부)

"Light 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겨울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라는 진리를 깊이 새겼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 학원 등 모든 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빛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늘 새롭고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Following Light(빛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센터 학습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성령의 빛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는 Finding Light,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빛의 정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Knowing Light, 예수님은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빛 되게 하심을 배우는 Living Light까지 세 가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새겼습니다.

신나는 야외 활동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칠곡보 사계절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눈밭과 놀이터를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늘 가슴에 새기는 다짐이 있습니다. 수십 번 반복되는 행사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단 한 번뿐인 성경학교'를 만들자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조교사, 찬양팀, 주방봉사, 간식, 중보기도, 후원으로 여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최선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대구제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등3부 겨울성경학교 우리는 복음의 증인~



김영훈 집사
(초등3부 교사)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사도행전 5:32, 개역개정)

초등3부 겨울성경학교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겨울성경학교의 시작은 개회예배로 열렸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초등부를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찾기 탐험대」 활동은 아이들의 참여도가 특히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경이 어렵고 낯선

책이 아니라 함께 탐험하며 발견하는 ‘살아 있는 말씀’임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말씀을 찾고, 말씀 조각을 이어 하나의 구절을 완성해 가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는 찜닭!! 초등3부 전담 셰프이신 이수민 선생님의 섬김 덕분에 아이들이 항상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증인 탐험대」 활동은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를 몸으로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받는 중’, ‘협력하는 중’, ‘사랑하는 중’, ‘소통하는 중’, ‘고통 받는 중’의 다섯 가지 코너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아이들은 서로 돕고 응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종과 실천에서 시작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순서였던 기도회는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활동으로 몸은 다소 피곤했지만, 기도회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마음을 모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기도회 가운데 온몸으로 찬양하고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예배 후 진행된 노방전도는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포장한 사탕과 물티슈를 들고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점차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네며 나눔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마치며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아쉬운 점들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3부 예배실이 짙은 색상의**

커튼으로 인해 다소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인 만큼, 보다 밝고 환한 분위기로 조성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 어린이 놀이방의 개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위생 문제, 그리고 이용 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놀이방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정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소중히 품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아이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가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가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래 남기를 바라며, 모든 과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찬 전도사님과 교사·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물댄동산





중등부 동계수련회

하나님, 예배, 친구 되짚어보기



송승빈 학생
(중등부 2년, 임원)

이번 중등부 수련회는 나에게 신앙과 사람 모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히 일정하나를 마치는 행사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련회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조별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중등부 공동체가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

랑하시는 분이신지,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단순히 며칠 동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는 나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물댄동산**





고등부 동계수련회

Love & Disciple - 사랑하고 제자되기 -



손재현 안수집사
(고등부 부장)

고등부는 [Love & Disciple]이라는 주제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의성 만경촌에서 동계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작년 하계수련회 강사로 섬겨주셨던 김덕홍 목사님과 카이로스 찬양팀, 고등부 학생 16명과 윤정용 목사님을 포함한 교사 16명 등 총 4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 선포와 카이로스 찬양팀의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정용 목사님의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학생들 간의 어색함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수련회에는 '자유시간'을 편성하여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졌고, 학생들 각자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도 제공되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에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이어진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련회 주제인 [Love & Disciple]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학생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고등부 학생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힘든 여정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학업과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다음 수련회에는 꼭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 문단동산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품공동체 사역팀을 소개합니다 !

☆ / [☆]이로 ☆☆☆

품공동체에는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기동력! 팔과 다리가 되는 '
사역팀'입니다.

사역팀은 총 7가지로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팀, 양육팀, 선교나눔팀, 문서팀,
새가족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주요 활동들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운영하는 팀이지요.
사역팀장은 매년 팀 내 혹은 추천을
통해 세워지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팀장들은 2026년에
새롭게 세워진 이들입니다.

[품공동체 사역팀을 소개합니다] 를
통해 각 사역팀의 팀 방향성과 주요
활동, 강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I편에서는 찬양팀 /
미디어팀 / 예배팀을, *II편(물댄동산
다음 호)은 양육팀 / 선교나눔팀 /
문서팀 / 새가족팀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청년들의 사역
활동을 관심 있게 눈여겨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Real Church
Real Impact

진짜 교회!
진짜 영향력!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찬양팀



찬양팀장
최한경 자매

찬양팀은요,

코람데오 찬양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섬기는 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요,

예배 전반에 걸친 찬양 사역을 **싱어와 악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정기적으로 모여 주일 청년부 예배를 위한 찬양을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2월 겨울수련회 집회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정된 활동은요,

(수련회 집회 찬양, 국내 선교 사역, 특별 예배 및 행사 찬양 등)
여러 사역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팀 강점은요,

22명의 다양한 은사가 함께 모여 기도와 팀워크로 예배를 섬기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역팀입니다. **팀원이 많은 만큼 친목도 단단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팀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과 사역 가운데 거룩과 순종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모든 집회와 사역 위에 성령님의 지혜와 기쁨 부으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팀



미디어팀장
박은덕 형제

미디어팀은요,

미디어팀은 예배와 모든 교회 활동에서 기술과 창의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팀입니다.

주요 활동은요,

- 유튜브 온라인 예배 송출 : 멀리 있는 성도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 현장 음향/조명/카메라 및 행사 미디어 운영 : 예배와 수련회, 공동체 행사에서 말씀과 찬양, 순서가 안정적으로 전달되어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배 PPT 제작 및 진행
- 온라인 예배 편집 및 청년부 홍보 콘텐츠 제작 : 예배 영상을 편집/업로드하고 청년부 활동과 사역을 담은 홍보 영상으로 청년부를 알립니다.

상반기 예정된 활동은요,

음질 개선을 위한 음향기기를 재구성하여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 강점은요,

장비는 차가운데 사람은 따뜻한 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배의 중심이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 팀원 한명 한명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 사역이 일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장비를 예인하게 살피는...



내품게 (청년부 행사) 때든 바꿀수 없죠!!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미디어팀...

예배팀



예배팀장
곽지예 자매

예배팀은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예배당 곳곳을 살피며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안내하는 팀입니다.

주요 활동은요,

- 예배당 준비 및 정리 : 예배당 자리 정돈, 쓰레기 등을 줍고 정리합니다.
- 매주 팀 모임 (삶 & 기도 제목 나눔, 신앙 훈련 등) :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갑니다.
- 예배 전 기도회 준비
- 지체 맞이 & 주보 나눔
- 예배당 환경 조성 : 사순절, 부활주일, 추수 감사주일, 성탄절 등 절기 및 프로그램에 따른 예배당 환경을 꾸밉니다.
- 공동체 프로젝트 : 타 사역팀들과 공동체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반기 예정된 활동은요,

사순절 프로젝트와 신앙 도서 나눔 등을 준비 중입니다.

팀 강점은요,

매주 예배 전, 후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삶을 나누면서 서서히 서로 간 신앙의 동역자로 자리 잡아 갑니다. 마치 삶에서의 예배자로 서기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는 곳 같을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이들이 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 기도로 준비합니다



~ 예배에 있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요 ~



공동체 프로젝트 & 절기 예배 환경 꾸미기 !!



The Well - Watered Garden · 품공동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꼬마 빛’들의 이야기



김현진 목사
(유아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
음 5:16)*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안녕
하세요! 늘 따스한 미소로 우리 아이들을 격
려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유아부실은 언
제나 봄날 같습니다.

지나온 2025년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나라 친구들도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라며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우리 아이들의
예쁜 입술이 생각납니다.

알록달록 파라슈트를 들고 파닥파닥 풍선
을 띄우며 까르르 웃던 그 맑은 웃음소리, 마

치 들리는 것 같지요? 또 사과 농장에서 자
기 얼굴만 한 사과를 들고 “목사님, 제가 땀
어요! 진짜 빨개요!”라며 함박웃음을 짓던 그
순수한 모습은 제 마음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은 예배 안에서 쉼
쉼 자랐고, 찬양의 율동을 할 때면 방긋방긋
웃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렸지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
백합니다.

이제 2026년, 우리는 더 멋진 꿈을 꾸어보
려 합니다. 올해 우리 유아부의 마음에는 “사
랑으로 우리 교회 반짝! 세상도 반짝!”이라는
예쁜 약속을 새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





반짝이고, 그 빛을 가지고 집으로, 놀이터로 나가 세상 반짝이게 만드는 귀한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1월 든든한 동행의 시작, 학부모 설명회: “우리 아이 신앙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회와 가정이 손을 맞잡고 걷는 따뜻한 첫걸음을 땁니다.

4월 조물조물 생명을 만나는 봄 야외예배: 파릇파릇한 봄날, 빨간 딸기를 톡톡 따며 우리를 위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숨씨를 느껴보려 해요.

5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친구 초청 잔치: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소중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교회로 오는 기쁨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전도’의 설렘을 느끼는 행복한 잔치가 될 거예요.

7월 말씀 속으로 풍덩, 여름성경학교: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침병 빠져보는 집중 신앙 훈련의 시간입니다. 신나는 찬양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영성이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11월 감사의 향기가 폴폴, 추수감사찬양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조잘조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노래할 거예요. 무대 위에서 빛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 벌써 기대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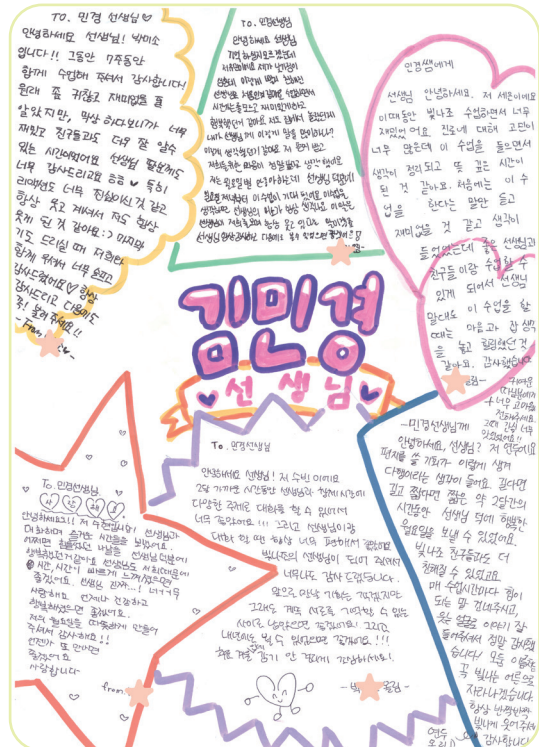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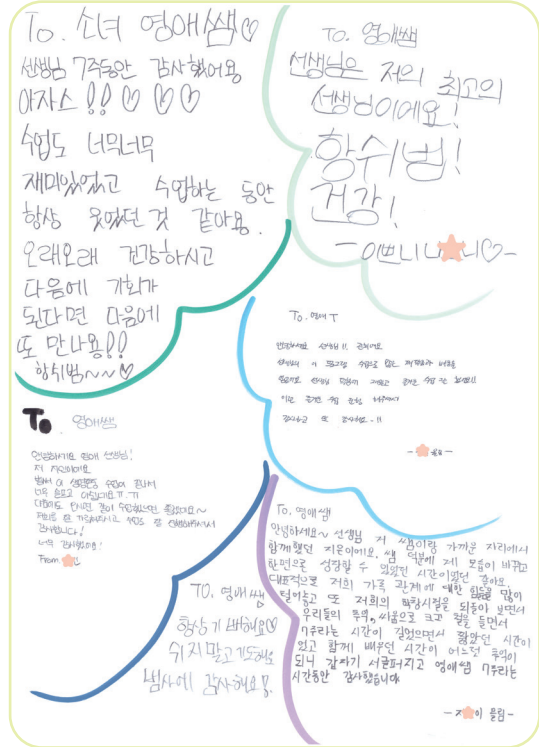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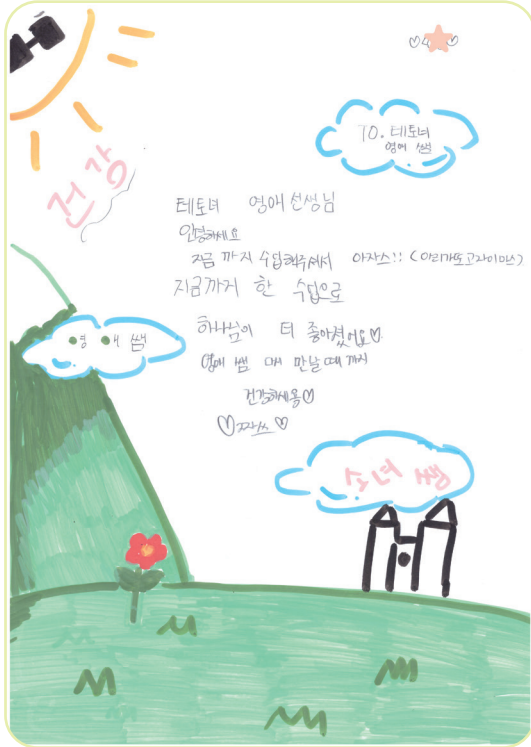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거친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포근하게 감싸주세요.

2026년 한 해, 유아부 아이들의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폴폴 피어나길 소망하며, 저도 낮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물대동산

* 유아부 예배시간(11:30~12:30 100주년 기념관 3층)

성명여중 생명존중 · 생명사랑 프로그램 소감문



소속	(1)학번 (6)반 (3)반 이름 () 일시	2025.9.1.-11.4
소감문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 자신의 변화한 점, 각고 투쟁한 점에 대한 소감 및 느낀 점을 적어보자. 2. 특별히 더 달랐던 회기 2개를 적고 이유, 깨달음, 결단을 적어보자.	
1.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그와 결지 않았던 좋은 것 한두개라도 단종 개개귀귀 시기에 대해 더 열거할 수 있어서 좋았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감사 신념과 믿음이 개개귀귀, "정말"이란 표현이 배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하면 주어진 나 개개귀 귀 시기를 개개귀 나 개개귀 개개귀 해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개귀 나 개개귀해, 개개귀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1. 그로기 신의관을 개개귀 가 특별히 되었고, 신의관이었던, 개개귀었던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개개귀, 이런 편이 아니었던 것들과 신의관을 살을 수 있었고, 이 회개를 통해 신의관 개개귀 배울 수 있었고 되었다, 사명들과 신의관을 개개귀 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끝까지 더할 더 신의관을 개개귀 더할 것이다.		
2-2. 그로기 개개귀 개개귀 가 특별히 되었고, 이 회개를 통해 더한 개개귀 회개에 대해서도 개개귀해 되었다, 내가 개개귀해 있는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수 있었고 개개귀해 되었다, 내가 개개귀해 있는 개개귀 개개귀 더 개개귀 수 있는 좋은 개개귀 되었다. 앞으로 이 회개에 개개귀 내가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개개귀		

소속	()학년 (5)반 (7)번 이름 (★)	일시	2025.9.1.-11.
소감문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 자신의 변화한 점, 각종 등 천장 적인 것에 대한 소감 및 느낀 점을 적어보자. 2. 특별히 더 달랐던 회기 2개를 적고 이유, 깨달음, 결단을 적어보자.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더욱 더 끈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습관까지 들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명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는 믿음이 든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할 만하고 더 열심히 할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나의 꿈에 대해서도 평소와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수업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런 수업 또 듣고 싶다.			
2-1. 신뢰감을 키워요! 원래 사람을 잘 알지 않고 남과 소통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신뢰감을 키워요'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을敞혀주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나는 정말 기뻐서 웃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			
2-2. 가족을 이해해요! 평소 가족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온 친구보다 그래도 한참 어색했었다. 하지만 '가족을 이해해요!!' 수업을 듣고 나서 내 가족은 '무엇을 좋아하니?' '아떤 형제관계?' 가족에 대해 하나하나씩은 사실 거대해 뵈었고, 내 가족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게 참아 화났을 수도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속	(1)학년 (2)반 (3)반 이름 () 일시	2025.9.1.-11.4
소감문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 자신의 변화한 점, 각오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소감 및 느낀 점을 적어보자. 2. 특별히 와 닿았던 회기 2개를 적고 이유, 깨달음, 결단을 적어보자.	
1. 처음에는 그저 그런 생명존중 수업인줄을 알았지만 선생님, 모둠원들(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번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나의 비밀과 감정을 다 털어놓으니 마음 한 편이 부둥켜 안아 주신 느낌이 들었다. 잠깐잠깐 발도도 돌아가면서 해서 그런지 수업이 지루하지 않음이었다. 생명존중을 하는 마음 함양이 왜 기다려졌고 설렘이었다.		
2-1. 회기 친구들(지도교사)을 만나고 자기소개를 했을 때와 별다른 해가 지면 되었다. 같은 반 친구만 자기소개를 하고난 후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특별해진 느낌이었다. 그냥 단순한, 선생님만 설명하는 생명존중 포로 그림이 아닌, 친구들라, 그리고 선생님라도 소통할 수 있는 생명존중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2-2. 회기 친구들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설명이 힘들었던 경험을 각자 말했던 회기나 마음에서 있었던 것 같았다. 사실 나는 별로 힘들었던 경험이 없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때 친구들이 느꼈던 감정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보니 믿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소속	(1) 학년 (2) 반 (24) 학 이름 ()	일시	2025.9.1.~11.4
소감문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 자신의 변화된 점, 각종 등 전한 적인 것에 대한 소감 및 느낀 점을 적어보자. 2. 특별히 고 달았던 회기 2개를 적고 이유, 깨달음, 결단을 적어보자.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만난 선생님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가졌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함께 나누는 더 세심하고, 특색 있었다. 친구들과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재밌고 기억에 남았다. 또한 내가 살아있고 생활할 수 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작은 생명인도 소중한 감사하던 것을 잘 느낀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이다.			
2-1. 내게 특별히 와 닿았던 회기는 '6차기,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라는 회기였다. 2 이유는 6차기에서 평소에는 잘 몰랐던 모습의 이야기를 알게되었고, 내가 살아있던 생애 계프를 그려봤다. 생애그리프를 그려보니 어대동안 내가 살아있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고 재밌게 넘겼다 또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앞으로는 안좋은 추억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느꼈다.			
2-2. 내게 특별히 와 닿았던 회기는 '7차기, 자는 끝났어요!!' 이었다. 2 이유는 내가 되새기는 시간에 체크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 그 활동을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냐 어떤 사람이 되고싶은지를 찾아보아서 기쁘고 부끄웠다. 그리고 나는 생각 끝에 능력이 있고 분노가기는 사람, 깨끗하고 단정함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싶단걸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그런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하고 행동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소 속	(1)학년 (3)반 (20)번 이름 (★)	일시	2025.9.1.-11.4
소감문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 자신의 변화한 점, 가장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소감 및 느낀 점을 적어보자. 2. 특별히와 달랐던 회기 2개를 적고 이유, 깨달음, 결단을 적어보자.		
1.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좋았던 점은 내가 정말 좋은 '남태희' 선생님을 만나고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까지를 배운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줌에 정말 변화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자부터 사랑하고 더 존중하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나와 한 발짝 더 가까이갠것 같아서부듯하다.			
2-1. 특별히와 달랐던 회기 첫번째는 2회기이다. 2회기는 선생님을 만나고 다같이 마음모아서한 시간이 조반이기 때문에 서로 어색한것이 없지 않아있었는데 몸으로 움직이고 눈과귀로 건강과 의지하면서 걸으니가 조금들토도 더 가까워질수있었다. 그리고 이활동을 통해 조금들은 진짜 믿고, 신뢰할수 있는 사람들과라고 깨달았으며 앞으로는 내가 다른친구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믿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2-2. 특별히와 달랐던 회기 두 번째는 마지막회기이다. (7회기) '7회기는 벌써 3주조원들과 선생님과 같이한지 7주조 마무리해야하는 회기였다. 이 회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서로 서로 조 선생님과 가까워진것 같기 때문에 특별히와 달랐던 회기였던것 같다. 그리고 이활동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선생님과 친구들과에게 의지했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말을 깨달았고 앞으로 조 만나면 좋겠다. 남태희 선생님과 조원에게 더욱 감사한다.			

2025년 추수감사절 감사사



이문희 은퇴장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자비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은혜를 감사 고백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었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호흡이 주님의 은혜요
저희의 가정이 주님 사랑의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먹을 양식과 거할 집을 주시고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광야 생활을 잘 견디고
올해 새롭게 부임하신 김준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대구제일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의 길을 걷어가는
따뜻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모임과 구역장, 기도회와 각종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제일교회가 영어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의료선교와 청년들의 미얀마선교를 통하여
 선교를 향한 비전을 키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 부흥사경회를 열어주셔서 허원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선교와 전도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다시 시발점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구의 날을 통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당회이지만 정책 당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년을 계획하며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준호 담임목사님 위임을 위해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교회가 새 출발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날 동안도 베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2026년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욱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넘치고
 연보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 내부로는 근검절약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온 지구촌을 향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은혜와 감사가 흐르고 넘쳐 흘렀어
 더욱더 부흥으로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희의 감사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 물대동산



저를 보내신 이의 뜻,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병규 은퇴장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는 부족한 저희를 대구제일교회 시무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능하면서도 고집 세고, 목소리가 크며, 말 많이 해 온 저를 12년 동안이나 참아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은퇴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갑작스러운 담임목사님의 은퇴와 새 담임목사님의 청빙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김준호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오늘 새로 임직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대구제일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며, 우리 은퇴자들은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무 장로라는 직분은 내려놓고, 대구제일교회 성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구제일교회가 과거의 어려웠던 일들과 분열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구 경북의 모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대구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면동산



이준옥 은퇴장로 (4대)



임태진 은퇴장로 (4대)



박헌달 은퇴장로 (3대)

선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의 '열심'을 너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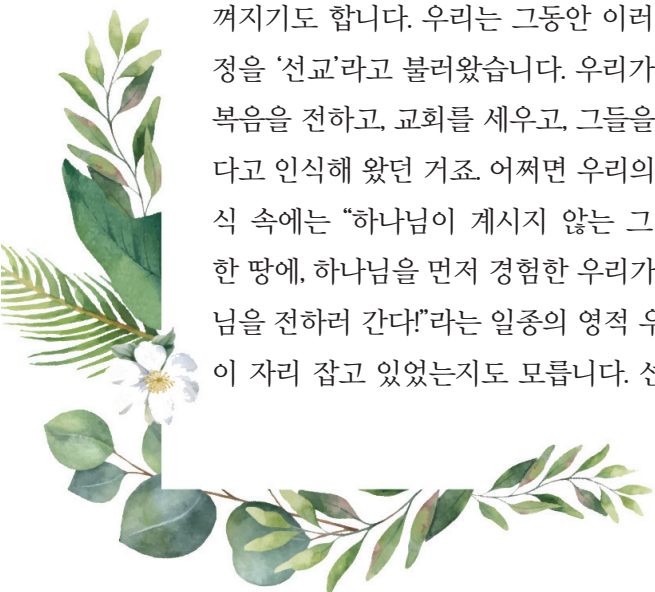
장규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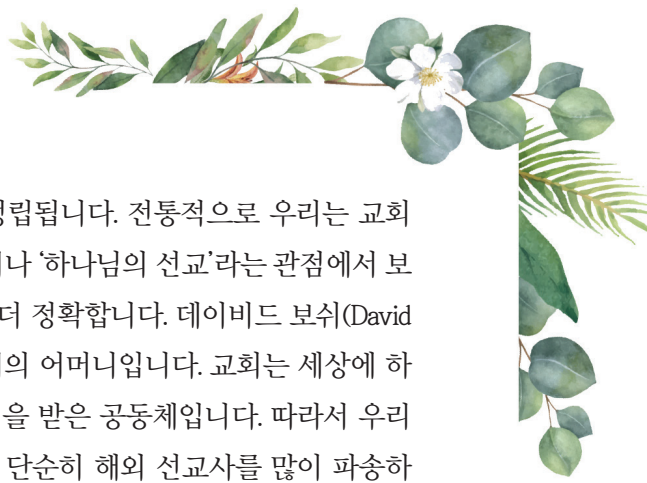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를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언제나 그 생명력을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보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사명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올해 표어에 담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역으로서 '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공향은 단기선교를 떠나는 수많은 선교팀들로 북적입니다. 형형색색 단체 티셔츠를 입고 짐 가득 사역 물품을 챙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지한 다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열정을 '선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돕는다고 인식해 왔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러 간다!"라는 일종의 영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교회 확장이라는 목표나 종교적 역할 정도로 좁아지게 됩니다. 선교가 본래 품고 있던 깊은 의미는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과연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통찰처럼, 성경은 단순히 선교를 명령하는 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현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선교(Mission)의 라틴어 어원이 '보내다(Mitto)'이듯, 선교의 기원은 인간의 기획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기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재정립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선교'라는 사역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가 말했듯, 선교는 교회의 딸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단순히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재정을 많이 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Being) 자체가, 그리고 성도의 일상(Doing)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선교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현장을 목격하러 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말했듯, 우리의 선교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넘어, 세상의 광장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깨어진 살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은 개종의 대상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겸손히 그 일에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단기선교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겸손히 참여하는 훈련의 장이어야 합니다. 올해 해외선교부가 준비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선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땅을 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하고 계신지를 목격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선교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겹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선교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며,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제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물대동산**

<참고도서>

1.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2.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
3. 광장에 선 기독교 (미로슬라브 볼프)

2026년. 몽골에서 보내는 감사의 편지



양인모 선교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김준호 담임목사님과 당회, 해외선교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문안드립니다. 벌써 몽골의 대지는 굳게 얼어붙고, 혹독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11월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국땅에서의 사역은 늘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성도님들께 중요한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몽골 선교의 모판과도 같은 울란바토르 한인교회(33주년)를 임시로 섬겨오던 중, 교회의 간절한 청빙과 선교사회의 권유를 무겁게 받아들여,

작년 11월 16일 주일에 울란바토르 한인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담임목회자가 부재한 채 큰 어려움을 겪던 한인교회가 몽골 선교의 중심을 다시 잡고 한인 사회와 현지 교회를 잇는 교두보로서 바로 서는 것이 이 시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걸음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결심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성도님들께서 몽골 땅을 향해 흘려주신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이제 '울란바토르 한인교회'라는 더 넓은 선교의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광야 같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주신 것은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빛진 자로서, 이제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지 영혼을 아울러 섬기는 더 깊은 사명의 바다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지난 2년간 물심양면으로 부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130주년 기념 선교사'라는 과분한 이름으로 몽골 땅을 밟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몽골에서의 모든 사역은 결코 저와 제 가족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와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복음의 열매: 평생 귀신을 보며 두려움 속에 살던 할머니(서덩후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감격을 함께 누렸습니다.

지도자 양성: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고 10년을 견딘 현지 전도사(어요나)가 굳건히 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아가페 교회의 든든한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세대: 게르촌의 척박한 땅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보내주신 의약품으로 무료 진료소의 문을 열어 울란바토르 구석구석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순간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네 아이(희은, 희성, 희찬, 희진)가 몽골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라난 것 또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잊지 못할 영적 고향, 대구제일교회"

저는 대구제일교회에서 6년간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대구제일교회 130주년 기념 선교사'라는 귀한 이름으로 저를 믿고 파송해 주신 박창운(前)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해외선교부의 깊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로 떠난 지난 2년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은 제게 그저 '선교사'와 '후원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친정 식구'가 멀리 떠난 자식을 염려하고 응원하듯, 6년간의 동역을 잊지 않고 기도로 품어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는 그 깊은 '정'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홀로 사역하는 것 같아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제 뒤에는 언제나 대구제일교회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영적 고향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언어의 장벽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몽골에서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역의 자리는 변화를 맞이하지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는 제 평생의 목회 여정에 지워지지 않을 거룩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저의 영원한 영적 고향이며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울란바토르 한인교회라는 새로운 선교의 현장에서, 몽골 선교의 재도약과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현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특별히 굿은일을 마다 않고 후원회장으로 섬겨주신 이정재 장로님의 헌신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김준호 담임목사님과 당회, 해외선교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인모·권은비 선교사 올림

물대동산

※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는 몽골 울란바토르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임지를 옮겨 본교회 파송선교사의 지위는 해지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협력선교사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함께 열매 맺는 기쁨, 선교는 동행입니다



이재환 장로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지를 향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교회는 단순히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거친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이 사역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선교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선교부

본 교회 파송 선교사



대만 손명락, 박원향 선교사 (1남 1녀)

1. 새학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학생들이 등록되도록
2. 기존 복음팀 멤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리더가 되도록
3. 선교사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일을 잘 해내도록
4. 대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도록



콜롬비아 이필창, 김선진 선교사 (1남 1녀)

1. 푸사신학교 신학생(25명)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콜롬비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쓰임 받도록
2. 이사벨 전도사의 교단 전체 청년 사역자들 훈련과 에딜손 전도사의 마드리드장로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하여
3. 아마존 지역의 목회자들(약 40명)을 위한 성경 세미나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잘 진행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4.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녀(나은 16세, 재원 14세)가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 거듭나도록

순회 선교사



이교욱, 신재명 선교사 (2남 2녀)

1. 순회선교사로서 강의 및 국내 이주민 사역, 온라인 상담 사역의 문이 잘 열리도록
2. 이교욱 선교사(암), 신재명 선교사(시각장애)가 아픔을 잘 극복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도록
3. 자녀들이 믿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적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선-문학선교, 기선-음악선교, 의선-수학선교, 하선-사업선교)

협력선교단체

한국OM / 선교대구 / 예수전도단

네팔 밀알학교 · 심탈리교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



몽골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 (3남 1녀)

1.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 공동체에 상처 치유와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2. 한인교회의 다문화 가치가 정착되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타내도록
3. 디아스포라의 사명 고취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도록
4. 부부와 네 자녀들이 현지 언어에 잘 적응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키르기스스탄 김보현, 박소연 선교사 (2남)

1. 칸테제일교회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사춘기를 잘 이기며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2. 상반기 성경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잘 배워 하반기에 이들이 성경 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3. 선교사의 건강한 선교사역을 위해 사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필리핀 남기철, 김소희 선교사 (1남 1녀)

1. 필리핀 현지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2. 다음 세대(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3. 장애인 사역과 지역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전해지도록
4. 선교사 가정의 영육 간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필리핀 천홍백, 정미란 선교사 (2남 1녀)

1.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빔토토봇 교회가 되도록
2. 빔토토봇 초등학교 무료급식 사역의 재정이 채워지고,
매주 금요일에 드러지는 채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도록
3.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내의 녹내장을 치료해 주시고, 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필리핀 전일안, 김혜영 선교사 (1남 2녀)

1.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며, 현지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2. 노방 전도와 '주님의 교회'에서 따갈로그어로 복음을 온전히 담대히 전하도록
3. 기도의 동역자와 주 후원교회를 만나고, 사역을 위해 차량이 구입되도록
4.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자녀(보라가정, 세라, 은기)가 진로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미얀마 박희양, 이철용 선교사 (1남)

1. 미얀마가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2. 성령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훈련생들이 성장하여 세영교회가 든든히 서며 또 하나의(두 번째) 세영교회가 세워지도록
3.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미얀마 황관중, 장은숙 선교사 (1남 1녀)

1. 미얀마의 정치가 안정되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가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주일예배와 청년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고, 제자훈련학교를 통해 헌신된 일꾼들이 양성되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도록
3. 가족 모두가 기쁨과 감사 속에 건강과 평안을 누리며, 선교사역을 든든히 지지 하는 동역자로 함께 하도록



칠레 하봉옥 선교사

1. 한성령 교회와 코인코(Coinco) 선교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2. 칠레의 여러 지역 마을에서 지속적인 가정교회들이 일어나도록
3. 선교사의 건강과 미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유창준, 허영미 선교사 (2남 1녀)

1. 믿음 학교, 좋은 씨앗 유치원, 꿈의 탁아방 사역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안전한 교육 환경, 필요한 재정, 교재, 시설이 잘 채워지도록
2. 5개의 지역 교회(쏘번어짜, 썽کم어짜, 니멩어짜, 뿌레야꾼 어짜, 엄너어짜)가 예배와 기도가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선교사와 리더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4. 가족이 영육 간 강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승근(발달장애)이 치료가 잘 되고 좋은 친구가 생기도록



캄보디아 장삼일, 은소망 선교사 (2녀)

1. 캄보디아 여러 지역 교회들과 연결되고 강사들이 잘 준비되며 현지인 강사들이 세워지고 교육되도록
2. 해외(X국, V국, 중앙아시아)에서의 강의 사역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해외 각국 현지 사역자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3. 문서 선교의 비전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성경공부 교재 번역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며 통역자들과의 동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태국 안양기, 이경희 선교사 (4녀)

1. 나콘핑 언약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2. 나콘핑 언약교회 예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3. 키리켓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4.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의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M국 전은진, 박이연 선교사 (1남 2녀)

1. 현지 사역자들이 사명감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뽕골 분당 선교지에 적합한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2. 로힝야 난민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며 선생님들의 가족 건강과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3.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파송교회가 신속히 연결되며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늘 새 힘을 얻도록



M국 이석진, 박은주 선교사 (1남 1녀)

1.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이고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도록
2. 성경통독과 성경 보급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20개의 성경통독 그룹이 세워지도록
3. 재정이 채워져 끼울교회 교육관 건축이 26년 상반기에 시작되어 완성되도록
4. 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잘 훈련받고 필요가 채워지며 딸이 직장에 잘 적응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스리랑카 수밋아산크, 정해연 선교사 (1남 1녀)

1. 운영 중인 유치원과 아동센터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2. 각처에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고 자립하도록
3. 부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4. 보디아칸다 평화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도록



방글라데시 홍두석, 박찬경 선교사 (2남)

1. 핏박의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로오마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와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2. 「복음을 실은 휠체어」 프로젝트를 통해 휠체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만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3. 같은 비전을 나누며 선교의 길을 걸어갈 파송교회를 예비해 주시도록



이스라엘 신원식, 이우정 선교사 (2남 1녀)

1.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향하여 눈과 마음을 열며 나아오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2. 이스라엘 성서대학 및 원 포 이스라엘과의 동역을 잘 감당하도록
3. 이스라엘 방문 사역 가운데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4.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고 주 예수를 잘 따라가도록



동아시아 장요섭, 김사랑 선교사 (2남)

1.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도록
2. 학생들이 복음 안에서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3. Q 형제대학에서 부부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동북아 윤갈렙 · 면양 선교사

1. 젊은 찬양팀을 세우며 아이들을 위해 기타와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도록
2.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더 많이 양육하고 세우며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3. 가정에 건강한 자녀를 주시도록
4. 세워진 288공동체(역대상 25:7)안에 있는 288찬양팀을 통해 다양한 교회들이 연결되어지며 찬양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코소보 & 하와이 데릭, 전기은 선교사 (2남 1녀)

1. Water For Life 세미나와 우물 정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2. 강의(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커플 결혼 준비, 트라우마 치료법, 경청법 & 관계 계발)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고 듣는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3. 자녀들이 믿음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고, 노모의 영육이 건강하고 친정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도록



영국, 동아프리카 권기원, 이은미 선교사 (2남 1녀)

1. 영국의 성경연구학교 학생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분명히 전달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학생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2. 동아프리카 위클리프 신학교의 약 150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150개 지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3. 가족 모두 건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케냐 오규훈, 차혜란 선교사

1. 새로운 사역지 케냐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선교 상황을 파악하며 HMAN 선교회 소속 250교회의 목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 HMAN 선교회에서 추진 중인 신학교 교육부 인가를 완결하고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HMAN 선교회 대표 이은용 선교사와의 협력 및 선교회에 속한 5명의 한인 선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의 선교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간다 윤재승, 조은숙 선교사

1. 모든민족신학교(ANTS)가 동아프리카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며, 신학 교육 없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2. 신학교 운영비와 신학생 학비를 위한 후원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3.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고, 바른 신앙을 확립하고, 맡겨진 사역지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4.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탄자니아 김정호, 정연숙 선교사 (3남)

1. 사랑과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2. 선교 농장에 모자 가정과 중학교를 시작 할 수 있도록
3. 와이저 아카데미 학교에 증반된 5학년 교실이 잘 준비되도록
4. 장학관에 있는 학생 9명의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5. 잔지바르 한국문화재단 NGO가 잘 운영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국내 잠비아 유학생 류승렬, 이원재 선교사 (1남 2녀)

1.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과 공부에 전념하도록
2.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승리하도록
3.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성경공부를 할 때 많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OM 순회사역) 김일권, 장인경 선교사 (2남 1녀)

1. 오엠 선교훈련원장을 잘 감당하며 선교사로 지원한 이들이 합숙을 통해 훈련되고 준비되며, 선교세미나에 중남부 한인교회가 연결되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2. 헝가리, 코소보에 단기 선교팀의 파송을 통해 동구권에 지속적인 선교가 있도록
3. Teen's in Mission에 준비된 자들의 등록과 다음 세대 사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준비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미국(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진심, 진정 선교사 (2녀)

1.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가진 새로운 파송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2. 중국 대륙 선교사 다섯 가정을 태국, 이집트, 네팔, 대만으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현지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도록
3. 양가 부모님의 영육이 강건하며 부친이 물리 치료를 통해 걸을 수 있도록
4. 신이민자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 개척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며 선교 동역 사역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협력단체



네팔밀알학교/심탈리 교회

1. 네팔밀알학교 교육 중 IMP(개별화 영성교육프로그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 · 비장애인 개개인의 영적 지식이 함양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도록
2. 네팔밀알미션을 통해 건축된 교회가 주의 보호 아래 성장하여 네팔 복음화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3. 네팔밀알학교 전문부까지 정부 등록(사립형 공립)이 순적하게 되고 기독교 정신의 학교로 계속 성장하고 'Global Vocational Ability Town' 설립이 잘 되도록
4. 대구제일교회 13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심탈리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자립하도록



대구이주민선교센터

1. 이주배경 아이들이 방임, 학대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2. 이주민선교센터 통역 봉사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3. 이주민들이 기독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 양상열 선교사

1.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여 자립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2. 여성지도자들과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3. 러-우 전쟁의 종전협정이 조속히 맺어지고, 한-러 관계가 회복되어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선교사 기도후원 부서



선교사 (선교지)	해외선교부 담당	기도담당 부서	담당자
손명락·박원향 (대만)	방현숙 권사	1 남선교회	민구진 장로
		3 남선교회	권오현 장로
		4 남선교회	권영수 집사
		5 남선교회	이주하 장로
		3 여전도회	정명자 권사
		8 여전도회	심은정 권사
		9 여전도회	김영미 집사
		청년 여전도회	최보라 집사
		유아부	손성진 권사
		유치부	송인숙B 권사
		청년 3부	박상범 집사
이필창·김선진 (콜롬비아)	이재환 장로	4 여전도회	홍순남 권사
		5 여전도회	김현옥 권사
		6 여전도회	권혜경 권사
		영아부	안현옥 권사
		초등1부	김상민 집사
		초등2부	최신애 권사
		초등3부	송차용 집사
		8, 9 남선교회	박문호 장로
		10 남선교회	김규명 집사
		청년1부	전용철 집사
		청년2부	정청기 집사
이교욱·신재명 (순회선교사)	이재환 장로	중등부	정찬우 집사
		고등부	손재현 집사
		2 남선교회	김운영 집사
		6 남선교회	김상현 집사
		7 남선교회	전용철 집사
		1 여전도회	신춘지 권사
		2 여전도회	홍숙희 권사
		7 여전도회	최은미 권사

선교사 (선교지)	해외선교부 담당	기도담당 부서	담당자
김일권·장인경 (OM 미국)	최진영 집사	영아부	안현옥 권사
		초등2부	최신애 권사
김보현·박소연 (키르기스스탄)	신승환 장로	2 남선교회	김운영 집사
		4 여전도회	홍순남 권사
하봉옥 (칠레)	이정재A 장로	청년 3부	박상범 집사
양인모·권은비 (몽골)		유아부	손성진 권사
		5 여전도회	김현옥 권사
남기철·김소희 (필리핀)	이태우 집사	6 남선교회	김상현 집사
		청년2부	정청기 집사
전홍백·정미란 (필리핀)	이경훈 집사	4 남선교회	권영수 집사
		10 남선교회	김규명 집사
전일안·김혜영 (필리핀)		고등부	손재현 집사
		초등3부	송차용 집사
박희양·이철용 (미얀마)		1 남선교회	민구진 장로
		초등1부	김상민 집사
황관중·장은숙 (미얀마)		6 여전도회	권혜경 권사
		2 여전도회	홍숙희 권사
수밋아산크·정해연 (스리랑카)		유치부	송인숙B 권사
장재훈·은영설 (캄보디아)		1 여전도회	신춘지 권사
		8 여전도회	심은정 권사
유창준·허영미 (캄보디아)		7 여전도회	최은미 권사
		9 여전도회	김영미 집사
류승철·이원재 (잠비아 학생)		청년1부	전용철 집사
		8, 9 남선교회	박문호 장로
데릭·전기은 (코소보, 하와이)		5 남선교회	이주하 장로
		청년 여전도회	최보라 집사
안양기·이경희 (태국)		중등부	정찬우 집사
		7 남선교회	전용철 집사
이석진·박은주 (M국)		3 남선교회	권오현 장로
		3 여전도회	정명자 권사
윤갈렘·면양 (동북아)			
김정호·정연숙 (탄자니아)			
전은진·박이연 (M국)			
진심·진정 (미국 캘리포니아)			
윤재승·조은숙 (우간다)			
홍두석·박찬경 (방글라데시)			
심탈리교회, 네팔밀알학교			
신원식·이우정 (이스라엘)			
장요셉·김사랑 (동아시아)			
이주민선교회(국내)			
권기원·이은미 (영국, 동아프리카)			
모스크바 신학교 (러시아)			
오규훈·차혜란 (케냐)			

목 직 함



황천호 목사
(홍보출판부 지도)

‘목직하다는 말’은 물건의 무게를 나타낼 때, 꼭 그럴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요. 그 사람의 점잖은 모습을 가리켜 목직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저 그 현장의 공기를 무게만 만들어 버리는 것과는 달리, 때로는 많은 말들 보다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누군가에게서, 오히려 힘을 느끼게 되고, 어느새 거기에 기대어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어릴 적, 가만히 서 계시는 모습만으로도 막연하리만큼 든든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랬고, 두꺼워진 어머니의 두 손목에 어느덧 내 시선이 닿아있을 때, 그런데 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표정에서, 목직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아낌없이 미소를 지어주시는 좋은 어른들의 표정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색함이, 냉소가 일상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때로는 염려가 밀려오기도 하는 날들 가운데, 좋은 어른들의 그와 같은 미소는 은은한 햇살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이들을 향해서, 나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겠다.’

목직함. 가볍지 않은. 그렇다고 무거움과는 다른. 무더운 땀방울 위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

이. 자주 불어오지 않지만, 간간이 시원하게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위로.

꼭, 우리 주님이, 무더운 우리 인생 가운데로 그렇게 불어와 주셨지요.

주님의 이야기를 잠시만 접어두고, 그와 맞아 있는 묵상을 꺼내어 본다면, 시편이 하나 떠오릅니다. 첫 번째 시편, 그 시작은 ‘복 있는 인생’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빗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기근이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지요. 그 속의 인물이 자기 식솔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찾아간 곳으로 곧잘 언급되는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대체 이집트에 무엇이 있길래, 기근을 피해 그곳으로 간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집트 땅에는 ‘나일’이라는 이름의 큰 강이 흐릅니다. 기근을 피해 찾아간 그 땅에서 마주하게 된 큰 강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분명 ‘생명’을 의미했을 테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기에, 아마도 시편 기자는,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지는 그 원천은 주님인 것을 그 시작에서 선포했으리라.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인생과 대비 된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절과 분리. 그래서 먼지와 같이 바람에 쉽게 흩날리고 만다고 이야기하

지요. 건조한 인생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분분히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두 손에 꼭 붙들려 있지를 못하는 거지요.

다시 접어두었던 주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은 온통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셨습니다. 시선이 바빠 움직이는 가벼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따듯할 수 있음을, 그분을 마주했던 인생들은 느꼈겠지요. 냉소와 염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썸하는 눈빛으로 찾아왔던 이들과는 다르게.

주님이 보내오시는 눈길은, 그것만으로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위로하고 채웠으리라. 그 눈길이 엿보이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를 떠올린다면, 함께 먹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현장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가운데, 먹을 것을 만들어 내신 주님.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생각해 봅니다. 잔치와도 같았을 그날의 현장. 모두의 입이 귀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을 만들어 내며,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그분의 모습 또한 유쾌함이었겠지요. 그렇다고 그 유쾌함은 결코 가벼워 볼 수는 없었을 테지요.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지요.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는 사단의 속삭임. 그 가벼움.

주님은 사역하는 동안, 아마도 나무 사형 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와 같은 가벼움과 마주해야만 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가벼움에 가벼이 휩쓸려, 재주를 부리는 주님의 모습을 기대했었지요. 그렇게 쉽게 모여들다가도, 또 한순간 사라지는 가벼움을 아시는 주님은, 그 현장을 뒤로하고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마치 기근을 피해 큰 강을 찾았던 옛날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생명에 잇대어, 생명을 건져 올리는 하늘의 순명을 붙들기 위함이었겠지요.

당신을 위한 떡을 만들지는 않으시고,

모두를 위해서는 떡을 만들어 내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떡이 되어주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는 사단의 속삭임. 그 가벼움.

그러나 그와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연민.

그 묵직함.

사랑의 묵직함. | 물댄동산



걷기만 잘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최용민 집사
(의료선교부)

걷는 것만으로 몸이 좋아질까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걷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하필 '걷기'일까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지 않습니다.

걷기는 다릅니다. 운동복이 없어도 되고, 돈도 들지 않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의학 연구자들은 “가장 현실적인 치료 운동”으로 걷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걷기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치매, 골다공증 까지 **약물 못지않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만 보 걸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600~3,000보**부터 이미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000보**를 넘기면 사망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 가장 효과가 좋은 구간은

- 60세 이하: **8,000~10,000보** - 60세 이상: **6,000~8,000보** 입니다.

그 이상 많이 걷는다고 나쁘진 않지만, **효과가 폭발적으로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즉,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3. 느리게 걷는 것과 빠르게 걷는 것은 다릅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도 좋지만,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몸을 훨씬 더 바꿉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조금 나며,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긴 힘든 상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혈압이 더 잘 떨어지고, 혈당이 더 안정되고, 심장병 위험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4. 당뇨, 혈압, 나이 걱정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 당뇨가 있는 사람은 걷기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의미 있게 내려갑니다.
 - 혈압이 높은 사람은 꾸준히 걸으면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리 힘이 생기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 기억력이 걱정되는 사람은 걷는 습관이 치매를 몇 년 늦출 수 있습니다.
- 특히 **식사 후 10~20분 빠르게 걷기**는 혈당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5. 시간이 없다면 “구간반복 걷기”가 답입니다

“30~60분 걷기는 솔직히 힘들어요.”라고 한다면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구간반복 걷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3분 빠르게 걷기, 3분 천천히 걷기** 이걸 **5번 반복** (총 30분)

끝입니다. 3분이 힘들다면 1분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올리면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걷는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그냥 걷는 사람보다 혈당, 혈압, 체중, 체력이 **2~3배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짧게 하지만, 몸에는 더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6.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오늘보다 **하루 1,000보만 더 걷기**
- 가능하면 **조금 숨찰 정도로 빠르게**
- 시간이 없으면 **빠르게-천천히 섞어서**
- 주 3~5일이면 충분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인생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앤동산



- ▶ 도서명: The 리턴:
예수께로 돌아가자
- ▶ 저 자: 김 여호수아
- ▶ 출판사: 규장
- ▶ 출간일: 2026년 1월 16일

저자 소개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1.5세 목사였던 그는 2003년에 한국 목회를 배우기 위해 귀국,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담당했다. 밤낮없이 쉬지 않고 달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셨다. '나와 만나려면 달리기를 멈추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고 만다.' 이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계획을 접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광야로 나가 교회를 개척했다. 17년째 목회하며 그 첫 마음을 돌아보다,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 예수님을 향해 다시 걷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노스웨스트대학교(Northwest University)에서 성서문학과 리젠트(Regent)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시애틀형제교회와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고, 2009년에 신도배 목사와 서울드림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

The 리턴: 예수께로 돌아가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 3:7

인공지능(AI), 퍼지컬AI, 휴머노이드(로봇), 초지능 등 세상은 온통 첨단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능가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는 미약해지고 흥미를 유발하거나 일 잘하는 인공물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시대에 저자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찾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세밀한 안내서' 하나를 출간하였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문득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바쁘고 믿음은 있는데 기쁨은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다. 《The 리턴: 예수께로 돌아가자》은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조용히 손을 내민다.

저자는 복음서 속 예수님의 기도, 식탁, 긍휼, 웃음, 십자가와 부활의 장면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놓쳐버린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보여준다. 신앙의 시작도, 회복도 결국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한다.

한 구절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고, 우리 안에 흔적처럼 남아 있는 울림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그 감동을 따라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을수록, 그 끝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이 책은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김 여호수아 목사는 이 책이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설레는 귀향의 여정을 소개한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름, 너무 자주 들었다고 생각하는 복음.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중심에서는 멀어진 예수님. 이 책은 그 예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

고 계신다.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아마도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간절히, 더 따뜻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주님은 달려오신다. 우리가 머뭇거리며 돌아가는 그 길, 주님은 눈물 어린 미소로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신다. 목사님은 외친다 “돌아가자~ 그분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라고...

◆ 책속의 픽(Pick)

■ 하구별된 만남으로서의 기도는 ‘돌이킴’이다. 아버지께로 돌이킴.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돌이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함으로의 돌이킴이 예수님의 기도다. p.27

■ 예수님의 겹세마네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얼룩진 처절한 기도였다. 예수님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는 육신의 자아와 맞서 싸우셨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 앞에 무너져 내리셨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부딪쳐서 육신의 욕구와 요구가 다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 p.52

■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결과는 죄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용서의 기쁨은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다. 회개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죄를 경멸하며 멀리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을 심어준다. p.170

■ 용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깨우칠 수 없다. 자비와 긍휼을 맛보지 않으면, 용서는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만난 사람은, 용서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다. p.198

■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죄인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죄의

골방에도 그분은 들어오신다. 그러나 그 빛은 수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p.354

■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충격적인 선언이다.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분의 목자 되심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다. 그분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 p.361

■ 세상은 강함을 힘으로 정의하지만, 십자가는 연약함으로 드러난 참된 능력을 선포한다. 이는 하나님의 거꾸로 된 승리 방식이며, 죽음을 이김으로 생명을 낳는 방식이다. 진정한 능력은 상대를 무릎 꿇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 무릎 꿇는 데 있다. 가장 연약한 형태로 드러난 사랑이 가장 강력한 구원을 이루었다. p.385-386

■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행복이다. 스스로 이룬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문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무너뜨린다. p.406

■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출입문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걷게 하는 좁은 문이다. 휘장은 찢어졌고, 초청은 주어졌다. 그러나 이 초청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고, 그분의 피와 살로 열린 그 길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는 세상 영광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p.411-412

■ 누구나 실패한다. 그것이 인생의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단순한 흑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성숙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도리어 그 속에 더 깊은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부활은 그 은혜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p.443 | 문단동산

'MBTI' 참고 도구인가, 신앙 가두는 틀인가

목회 현장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집사님. MBTI 분석 결과, 새신자 담당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한때 청년부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볍게 활용되던 MBTI 성격유형검사가 최근에는 사역 배치와 심방, 나아가 목회상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교인의 기질을 이해해 '맞춤형 목회' 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앙의 역동성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MBTI는 과연 통전적 인간 이해를 돕는 보조 도구일까? 아니면 신앙을 가두는 틀이 될까? MBTI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영역은 사역 배치다. 일부 교회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사역 적합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각 교인의 고유한 달란트를 존중하려는 목회적 배려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세밀하고 조직적인 성향이 강한 감각·판단형(SJ) 교인은 교회의 행정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직관적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직관·감정형(NF) 교인은 교육이나 선교 기획에서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전제를 강조한다. "심리학은 특별 계시인 성경 아래에서 해석될 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MBTI는 은사를 규정하는 잣대가 아닌, 교인 자신이 기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본 교단은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 신앙 열정과 에큐메니칼적(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일치) 사회 참여의 균형을 중시해 왔다. 교단의 신학적 토대인 '통전적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심리적 기질을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다만 이런 신학적 흐름 속에서 MBTI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수용하되, 신앙과 은총의 우위성을 분명히 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MBTI는 설교와 목회 상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현장목회자들의 주장도 있다. 성경 인물을 이상화된 영웅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각기 다른 성향과 한계를 지닌 인물로 조명할 경우 교인의 공감과 이해는 넓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바울과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를 대비해 설명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기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교회사 전문가인 임희국 명예교수(장신대)는 성경 인물과 MBTI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람의 기질을 MBTI로 분석하고 유형을 확정해 사역 현장에 적용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경 인물의 몇 가지 특징을 근거로 전체 성향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임 교수는 "성경 인물에 대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격 유형을 단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추론을 하나의 팩트처럼 받아들이거나, 작은 단서를 확대해 인물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담 현장에서도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사고형 교인에게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이, 감정형 교인에게는 공감과 정서적 지지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참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성령의 변혁적 능력을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의 한 담임목사는 "MBTI를 상담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유형에 갇혀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유형을 '다루기 힘든 사람'이나 사역에 부적합한 성격으로 낙인찍는 것과 연계된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기질을 넘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심한 성향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례를 교회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MBTI라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목회의 태도에 있다. MBTI는 교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도록 돕는 선에서 의미를 갖는다. 성격 유형의 분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전인적으로 환대하는 공동체의 영성이다.

한국기독교공보 (2026년 1월 26일)

신동하 기자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사람의 성격과 심리적 선호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성격 검사 도구입니다.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가 개발했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을 통해 개인의 사고·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합니다



우정복 원로장로

1.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 (참고 : 비전성경사전의 “예배”)

가. 경외, 존경의 의미

(1) 원어로 (히)‘야레’(렘32:39,신6:13 등 320여 회)와 (헬)‘세보마이’(마15:9,행18:13 등 10여 회)이며

(2) 이는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경외하다, 숭배, 경배, 예배하다” 등의 뜻이다.

나.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 맞추다의 의미

(1) 원어로 (히)‘샤하’(시99:5,창18:2 등 165여 회)와 (헬)‘푸로스퀴네오’(마2:2,요4:20 등 54여 회)이며

(2) 이는 “경배,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존경하다, 아첨하다, 굽실거리다, 보복, 존경, 공경, 예배드리다” 등의 뜻이다.

다.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

(1) 원어로 (히)‘아바드’(신10:12,창2:15 등 261여 회), ‘아보다’(출1:14,창29:27 등 113여 회), ‘샤라트’(창39:4,대상16:4 등 90여회) 등과

(헬)‘라트류오’(마4:10, 롬1:9 등 21여회), ‘레이틀기아’(빌2:17,눅1:23 등 6회), ‘라트레이아’(롬12:1,요16:2 등 5회), ‘레이틀게오’(행13:2, 롬15:27 등 3회) 등으로

(2) 이는 “일하다, 봉사하다, 종살이, 섬기다, 노예, 예배, 순종” 등의 뜻이다.

2. 성경에 나오는 “제사(예배)”의 종류

구약에서 ‘제사’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제사’ 또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 “속죄의 제사”(레1:4,레9:7,출29:10-14,시51:17) : “번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창4:3,4,시51:19)로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를 위하여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다.

나. “뿔에 엎드려 드리는 경배(예배)”(느8:6,눅4:8,삼하12:20,느9:3~6,슥1:5,출34:8,계5:14,창24:26) : ‘머리 숙이다’, ‘경외함으로 절하다’, ‘손에 입 맞추다’ 등의 뜻과 같이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다. “찬송의 제사”(히13:15,호14:2) : 찬송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제사

라. “감사의 제사”(레7:13,시50:14,23,시56:12,시116:17,욥2:9) :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마. “이웃 섬김의 제사”(히13:16) :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40)와 같이, 이웃 섬김으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인 제사 등이 있다.

➡ 이는 곧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1)드리는 것”들로 되어 있다.

* 註¹⁾ :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림”

* 註²⁾ :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음”

3. “설교” 및 “성경강해(講解)”

가. “설교”나 “성경강해” 등에서 강조하는 성경말씀에는

(1) “복 있는 사람은...,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시1:1,2,수1:8,시19:14,시119:97,신6:6~9,느9:3)

➡ 여기에서 이 “묵상”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주야로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2)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마4:4,신8:3)

(3) ‘이 성경이 곧 내게(주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요5:39)

(4)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시119:151,142)

(5)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롬1:16)

등의 말씀들, 이들은 주님을 증언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믿음을 더함으로써 구원 곧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롬1:16).

나. 이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묵상할 때,

(1)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거나 *단어나 문장 해석 등으로만 끝난다면 *율법적인 신앙관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겁고(눅24:32,45) 즐겁고(시1:2,렘15:16) 감동 감화를 “2)받음”(딤후8:16,고후6:6)으로 열매 맺는(마7:15-27) *복음적인 신앙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4. 교회의 예배 의식의 구조

가. 구약에서의 예시(느9:3~6)

(1) 초막절 행사가 끝난 사흘이 지난날의 사분의 일에는 율법책을 낭독하며

(2) 그날의 사분의 일에는 죄의 자복, 송축·찬양, 신앙고백, 경배 등을 하였다.

나. 현대 교회의 예배 의식의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 ‘찬송’ ‘신앙고백’ ‘기도’ ‘봉헌’ ‘찬양’ 등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1)올려 드리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고

(2) ‘예배의 부름’ ‘성구교독’ ‘성경 봉독’ ‘설교’ ‘축도’ 등은 회중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2)받게 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5.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가. 현대 교회의 올바른 예배의식은?

(1)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

(가) 속죄를 위한 속죄제(레1:4,레4:14,히5:3,민8:12,시51:17,19,마4:17,막1:4)

(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경배(예배), 느8:6,눅4:8,삼하12:20)

(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히13:15,호14:2)

(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레7:13,시50:14,23,시56:12,욥2:9)

(마) 노력과 고난으로 이웃 섬김의 제사(히13:16,마25:40) 등으로

➡ 이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 ‘경배’ ‘찬송’ ‘감사’ ‘이웃 섬김’ 등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¹⁾올려드리게” 된다.

(2)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

➡ 성경말씀(설교, 성경강해)을 ①듣고 ②믿고 ③실천할 때 구원을 “²⁾받게” 될 것이다(롬1:16,요17:3).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조용한 생각, 말 없이 마음속의 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시1:2).

➡ 축복의 기도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축복의 기도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일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1)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한 시간에 많은 수의 모임과 그 모임의 예배의식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아닌지 모르겠다.

(2) 그러나 올바른 예배의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직 온 몸과 마음을 드려(요4:24) 하나님을 기쁘시게(히11:6),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들(눅4:8,히13:15,시50:14,23) 곧 그 자체가 예배(제사)인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왕하23:27)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배는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참되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요4:20~23)라고 하셨다. 따라서 올바른 예배는 어떤 모임이나 장소나 예배의식이나 형식의 중요함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다.

6. 예배드림에 대한 제언

가. 진실 된 믿음의 제사(예배)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¹⁾올려드림이다.

<제사(예배) 의식>에서, 주님께 진실 된 믿음으로써 *회개’(레1:4) *경배’(눅4:8) *찬양’(히13:15) *감사’(레7:13,히13:15,시50:14,23,욥2:9) *이웃 섬김’(히13:16,마25:40) 등의 제사(예배)를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에 호소’(행2:21, 롬10:13)하거나 ‘경외’할 때(시85:9)

➡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 즉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시51:17)과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요4:23)로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¹⁾올려드리려 한다.

나.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은혜와 구원을 ²⁾받게 될 것이다.

위 <가> 항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¹⁾올려드리는 제사(예배) 의식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예배의식인 <성경 말씀(설교, 강해)>을 *주야로 묵상과(즐거워하여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림) *믿음으로 실천할 때(레20:8,22, 눅6:47)

➡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²⁾받게 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구원(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이는 ‘주님께서 구원(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요5:24,행2:21,롬10:13).

➡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름’(롬10:10)을 믿고 실천의 삶을 다짐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 물면동산



곽수영 집사
(홍보물관부, 변호사)

전세사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대책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중장년층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I.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1. 깡통전세 -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큰 경우

깡통전세란 집의 실제 가치보다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나 겉보기에 그럴듯한 리모델링된 구축 빌라로 사회 초년생 등을 현혹하여 매매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에서 신혼부부가 전세금 2억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새집이고 주변 시세도 애매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빌라는 이미 은행 대출이 많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고, 은행 대출이 먼저 변제되면서 세입자는 보증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2. 동일 주택 이중·삼중 계약

한 채의 집을 두고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뿐입니다.

한 주택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법원은 누가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 순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마친 한 사람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오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온다”는 말에 계약을 서둘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3. 명의만 빌린 임대인(바지임대인)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실제로 집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명의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은 등기부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조직이 명의만 빌린 경우라도, 세입자가 그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 실제 사례

한 청년은 빌라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고령의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은 “자세한 건 아들이 다 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명의자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전세사기 조직이었습니다.

4. 근저당 과다 주택

이미 집에 많은 은행 대출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문제없다”고 축소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집에 은행 대출(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먼저 돈을 돌려받습니다. 세입자는 그다음 순위에서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 이후 순위에서만 변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돌아올 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전세금 1억 8천만 원에 계약한 다세대주택은 이미 은행 대출이 2억 원 이상 잡혀 있었습니다. 집값은 3억 원 수준이었지만, 경매 과정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세입자에게 돌아올 금액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5.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었지만, 집주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회사는 해당 전세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입자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구조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도 있습니다.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사례

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전세 가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세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II.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1.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출이나 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그 주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 시세와 집값을 비교하십시오

주변 비슷한 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 전세 시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유난히 높거나 “조건이 너무 좋은 집”은 한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전세보증보험은 사전에 위험한 계약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계약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어렵다면 그 주택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잔금일 이전 추가 대출 금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5. 입주 후 절차를 즉시 진행하십시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당부의 말씀

청년과 신혼부부는 첫 주거 계약에서 경험 부족으로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집이 새것이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기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전문기관의 정보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맺는말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실천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문대동산**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확인
- ☒ 집주인과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 전세금 + 대출금이 집값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 ☒ 주변 전세 시세 비교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 계약서 특약사항 포함 여부
- ☒ 입주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진행

세상 속으로 흐르는 예배의 통로, 카페 '디디씨돌담커피 경대북문점'을 가다

커피 향 너머로 흐르는 낮은 땅의 예배, 카페 '디디씨돌담커피 피 경대북문점'을 소개합니다.

매 주일2부 예배, 오후예배, 금요기도회, 강단 위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기타를 치시는 손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그 손에 시멘트가 묻고, 커피 가루가 내려앉은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라는 낯설고도 치열한 현장에 발을 내디딘 목사님의 개척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퍼즐'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인근, 편안한 안식을 주는 카페 '경북대 북문점 돌담'이 있습니다. 이곳의 시작은 작년 8월, 어느 예배 컨퍼런스 길에 우연히 들른 한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련된 공간임에도 묘한 평안함을 느꼈던 그곳에서 사장님과 짧은 나눔을 가졌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크리스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본사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목회자가 노크하면 함께 기도하겠다고던 기업의 비전과, 예배와 선교를 꿈꾸던 목사님의 기도가 만나 조각 맞추듯 지금의 '돌담'이 세워졌습니다.

2. 하와이 코나에서 제주도까지, '예배 공동체'를 향한 꿈

이 사역의 뿌리는 하와이 코나 YWAM(예수전도단) 훈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누리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다섯 식구가 다 같이 떠났던 선교 훈련, 그리고 마지막 집결지였던 제주도의 작은 교회 카페에서의 기억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머물며 안식을 누리던 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작은 카페를 매개로 예배 사역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3. 시멘트 묻은 손으로 든 기타, 삶의 현장을 배우다

카페 오픈 준비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대표와 이사들이 직접 내려와 함께 돌을 붙이고 시멘트 작업을 하는 헌신 속에 목사님도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오전에는 시멘트를 바르고, 저녁에는 그 손 그대로 기타를 메고 부흥회 찬양 인도를 위해 교회로 향하며 목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토록 치열한 삶의 현장을 버티며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구나.”라는 절실한 감동은 목사님에게 세상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목회 현장이 되었습니다.

4. 세상과 교회를 잇는 '브릿지(Bridge)'가 되다

카페 '돌담'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을 넘어 지역 사회를 섬기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시청과 인근 공무원들에게 10% 제휴 할인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요청으로 학과 차원의 공식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노골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세상 프랜차이즈와 경쟁해도 뒤처지지 않는 맛과 가성비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캠퍼스 복음화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선교와 예배, 그 본질을 준비하는 훈련장

목사님에게 이 카페는 장차 북한 선교나 해외 선교지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소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선교적인 마음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진짜 선교지에 가서도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라는 낯선 영역에서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피부로 느끼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곳에서의 사역을 매일 아침 커피 향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초대

대구제일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며 뉴 시즌(New Season)을 맞이한 목사님은, 이곳 '돌담'이 많은 이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10% 할인을 약속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이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열정과 도전의 장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 그 속에 담긴 목사님의 진심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예배자로 뵈겠습니다.”

목사님은 “시멘트가 묻은 손으로 기타를 땀 때, 비로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버텨온 삶의 무게가 눈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카페 '돌담'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성도님들과 캠퍼스 청년들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영적 대피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시간을 내시어 정성껏 내린 커피 한잔과 함께 목사님이 세워둔 따뜻한 돌담 안에서 쉼을 누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돌담동산

※ 대구 제일 성도님들을 위한 목사님의 넉넉한 마음(10% 할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doldam.ddc_knu



동영상 및 사진

기사 작성 : 홍정우 장로
사진 / 동영상 : 류신철 안수집사



4남선교회 야외예배(2025년 하반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을 피크닉



최무진 은퇴장로
(4남선교회 부회장)

4남선교회(1965~1969세)(2025년 회장 권중창)는 전반기에는 단독으로 후반기에는 남선교회 연합(5남선교회 주관, 회장 주기성)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오는 전통이 있다.

후반기 행사가 열린 11월 1일(토)은 파란 하늘과 쾌청한 가을 날씨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날이었다. 어릴 적 소풍을 떠날 때 설렘던 마음이 나이가 좀 든들 어디 사라지랴. 버스 안에서 회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눈웃음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9시 40분경, 이필행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소풍은 시작되었다. 버스가 출발하니 일행은 오래지 않아 수면파와 대화파로 나뉘었다. 수면파는 주로 뒷자석에 모여 앉은 듯하였다. 어제 하루가 좀 힘들었던 분들이겠지. 금강산도 식후경. 구룡포 시장에 당도하여 이른 '브런치(아점)'로 점심을 먹었다. 구룡포 수

협 직원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진 횡집에서 물회를 먹었다. 큼직한 흰 그릇에 회와 채소만 듬뿍 담겨있고 얼음이 보이지 않길래 '어~ 물회'가 아닌가 잠시 생각하다 주변에서 주전자로 물을 붓는 모습을 보고 순간 깨달았다. '아~ 갈아 엮은 얼음이 결국 녹으면 물이 되니 물회구나~' 여름철 물회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하나가 깨어진 순간이었다.

12시쯤, 식당에서 멀지 않은 「일본인 가옥 거리」를 둘러본 후, 수직 계단을 힘들게 올라 「구룡포공원」에 올랐다. 이어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조립식 장난감 같은 우람한 「과메기 문화관」 건물을 만났다. 우리는 4층 카페에 올라 차를 마시며 자유시간을 가졌다. 넓지 않은 곳에 우리가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려 다른 방문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커다란 통유리 창을 통해 우리는 가





을 녀 녀 구룡포의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피조물의 인공물과 함께 있어도 늘 조화롭고 아름답다. 문화관의 건물이 꽤 큰 편이라, 과메기와 관련된 공간이 많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은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았다. 구룡포를 떠나기 전 필수 일정은 수산물 구매가 아닐까, 안방 마님들은 생선이나 건어물 사기에 부산스러웠고, 돌쇠 남편들은 기꺼이 짐꾼을 자처하였다.

이어 겨울 채비로 부산스러운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찾았다. 늘 그랬듯이 넓은 광장에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상생의 두 손은 거친 바람을 맞서 막고 있는 듯하였다. 우리 일행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상생의 손이 있는 해변과 인근의 커다란 나무덱(deck) 쪽으로 빠르게 몰려갔다. 보일 듯 말 듯, 거친 바위와 찰랑거리는 파도의 숨바꼭질, 우리를 반기듯 다가왔다 멀어졌다를 반

복하는 바다 갈매기들을 아이 같은 눈망울로 바라보고 삼삼오오 사진 찍기에 바빴다. 11월의 바다는 다가오는 겨울에 긴장한 듯 꽤 차가웠다.

마지막 방문지는 장길리 복합남시 공원(170m 다리). 바다 위 다리는 '보릿돌교량개체공사'로 폐쇄되어 진입할 수 없었다. 공사기간이 26.1.13까지였으니 지금쯤 그 다리를 산책할 수 있으려나... 우리의 삶은 늘 시작과 끝이 병행하는 이벤트의 연속이다. 여러 번 갔던 곳이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좋아 더 즐거웠던 하루 피크닉을 오후 5시경에 접었다. 인생의 피크닉에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 물대동산



민심의 나라 미국 정치의 중심 워싱턴 DC를 걸어서 돌아보고..



신기수 은퇴장로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워싱턴 DC의 상징인 미국 국회의사당(capitol) 앞에 섰다. 하얀 돔의 우뚝 솟은 모습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답게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계단 위를 오르내리는 방문객들 속에서 나 역시 이 나라의 정치와 역사를 상징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를 느꼈다.

국회의사당을 뒤로하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성경 박물관(Museum of the Bible)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고대 성경 사본들과 전시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특히 3D 영상과 체험형 전시를 통해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 주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듯한 전시는 나로 하여금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 경전을 넘어 인류 문명과 가치관의 근간임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이곳에서의 관람은 미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적 토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발걸음을 옮겨 들어선 곳은 세계 최대의 항공 우주 전시관인 스미스소니언 항공 우주 박물관(Air and Space Museum) 아폴로 11호의 모형과 실제 우주복 앞에 서자,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장면이 떠올랐다. "한 인간에게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과 함께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그 순간의 감격과 신비로움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인간의 꿈과 도전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의 현장 앞에 서니 경외심이 절로 일었다.

이어 방문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공룡 화석과 희귀광물 등 전 세계의 자연유산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수억 년의 세월을 간직한 화석과 지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과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창조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했다. 박물관을 나와 북쪽으로 향하면 라파예트 스퀘어(Lafayette Square)가 나온다. 그곳에서 바라본 백악관

은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태를 드러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보이는 백악관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역사적 결정들이 내려졌음을 떠올리니 묵직한 울림이 다가왔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어울리는 모습은, 이곳이 단지 미국의 권력의 상징을 넘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내셔널 몰 중앙에 솟은 워싱턴 모뉴먼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오벨리스크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물답게 장엄했다.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니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길을 따라 서쪽으로 걷다 보면, 장엄한 한국전쟁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가 나타난다. 우비를 입고 전장을 행군하는 병사들의 청동상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와 희생을 떠올리게 하며 마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이었다. 반사 연못 너머로 비친 워싱턴 모뉴먼트와 함께 서 있는 링컨의 좌상은 고요하면서도 위대한 기운을 뿜어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나라의 기초를 지탱하는 정신임을 느끼게 했다.

해가 기울며 석양빛이 내셔널 몰을 붉게 물들였다. 하루 동안 걸었던 길을 돌아보며,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 이상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사상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워싱턴 DC의 기념비와 박물관 속에서 정신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길 위를 걸었던 오늘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신앙과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 물댄동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변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두 달이 넘지 못하여 조현병 (Schizophrenia)이라는 정신분열증에 걸려 인생을 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병은 심각한 정신 질환 중 하나로, 생각, 감정,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해결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자

서전으로 『작은 꽃』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다친 곳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가 보지 않을 때에도 마당에서 유리조각이나 뾰족한 돌을 줍곤 합니다. 아이가 놀다 다치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이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부분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길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9-10).

인간은 범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짓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범죄 한 인간은 몸만 죽
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
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버
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
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죄값을 지
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구
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
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
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
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
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
23~24).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
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

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
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세계에 존재한 나라들은 170개국 이상이 됩
니다. 그중에 선진 국가들은 일찍이 성경과 예
수를 믿었고 지금은 거의 몰락한 공산주의 국
가들은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
령인 워싱턴은 성경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헌
법을 만들어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미
국 대통령 41명 모두가 성경과 하나님을 믿었
고 세계 위인 87명이 심판과 천국, 지옥을 믿
습니다.

세계 노벨 수상자 450명 중 70%가 기독교 신
자들이며 그중에도 특히 세계에서 가장 존경
을 받는 링컨이나 워싱턴, 처칠, 쏘원 이런 분들
이 천국, 지옥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한국의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3인 중 16명
이 목사, 장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짐승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과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윤리 도덕을 주장하며 갖가지 종교가 생겼습
니다. 심판이라는 말에 담긴 천국과 지옥은 어
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의 소견인 줄 알지만 미
국 NASA 국 천재 과학자들과 노벨 수상자들
세계 위인들의 대다수와 미국 대통령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1500년 전에 성
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고독한 인간들이 참 행복

과 영원한 세계를 갈망한 나머지, 석가는 선행과 수양의 종교인 불교를 만들었고 공자는 지식의 종교로서 유교를 만들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윤리도덕을 세우는 종교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종교도 내세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더 큰 불행과 죽음이 쉽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석가, 공자, 황금이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사람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처녀 몸에 태어나서(사 7:14) ‘길과 진리요 생명’의 다리가 되셨습니다(요 14:6). 생명의 길은 좁고 멸망의 길은 크고 넓습니다. 중보자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성하셨습니다(히 10:17-18, 히 9:12-14).

모든 지상의 성인들은 아름다운 윤리 도덕과 명언을 남겼으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오직 역사 속에서 예수님 만이 생전에 예언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면서 500여 명이 보는 자리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했습니다(고전 15:3). 이 사실을 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전도입니다(행 1:8-9, 마 28:18-20).

이 부활 사실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역사책과 각종 문학 서적, 세계 백과사전과 단테의 신곡, 실락원 복락원 이런 책들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를 믿고 살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감동에 의하여 믿음이 생길 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

사랑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평안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 물댄동산

블로그: [blog.naver.com /ad1268](http://blog.naver.com/ad1268)

항상 감사하며 살자

크리스천의 인생관(人生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起點)으로 변화했다



권중웅 명예집사

누가복음 16장 16절 :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侵入)하느니라.

위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Jesus Kristus)의 말씀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以前)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인생의 가치관(價値觀)으로 삼고 살아왔었다. 이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福)을 내려 주시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셨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부터는 크리스천의 인생관(人生觀)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변화되어, 이 세상의 복(福)에 얽매이는 건 지양(止揚)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所望)하면서 선(善)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가 벌써 2천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은 구약시대의 인생관에 얽매어, 이 세상의 복(福)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는 크리스천의 인생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처음 선포하는 첫머리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됐다.(누가4:17,새 번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

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하고 의(義)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받아 선(善)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로써,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된다. 우리의 본향(本鄉)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구약시대의 인생관과는 달리 뚜렷하게 변화되어, 이 세상의 행복보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 이는 더없이 중요한 인생관의 변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기점(起點)으로 인류의 인생관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구약시대의 희미한 내세관(來世觀)은 뚜렷해졌다.

신실(信實)한 크리스천은 변화된 인생관으로, 하나님과 재물(財物)을 함께 섬기지 말아야 한다.(누가16:13) 하나님 외(外)에 재물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偶像崇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과 재물(財物)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경고(警告)의 말씀을 주셨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은, 이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예컨대 부자(富者)와 거지 나사로

의 예화(例話)에서(누가16:19:31),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의 헌데 투성이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다고 기록됐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나사로의 헌데를 핥았다고 했다.(누가16:20-21, 새 번역) 이는 부자가 재물 축적(蓄積)에만 관심을 두고,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혀 보살피지 않았다는 방증(傍證)이 된다. 부자가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事例)이다. 그 부자는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福音)을 선포하신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서 온갖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사도바울의 삶처럼 세상의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살지라도, **영생(永生)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생관으로 신실(信實)하게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다.** 선한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며 성경의 곳곳에 기록됐다.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侵入)하느니라.”라고 가르치셨다. 새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듯 억지로 밀고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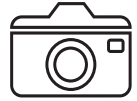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획(劃)을 긋는 인자(人子)로써, 역사의 년도(年度) 표기(表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이전의 년도를 BC 라고 표기하고, 그의 출생년도 이후부터는 AD로 표기하고 있다. BC는 기원전(Before Christ, 紀元前)을 뜻하고, AD는 기원후(紀元後)로써 라틴어 ‘Anno Domini’의 약자로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축(中心軸, the central axis)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크리스천의 인생관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起點)으로 변화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舊約, Old Testament)으로 지칭(指稱)하고,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은 신약(新約, New Testament)으로 지칭한다. 신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복(福)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부터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선(善)하게 살면, 거룩하게 되어 진정한 행복감(幸福感)을 가지게 된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인생관으로, 이 세상의 복(福)에 탐욕(貪慾)을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로써 결단코 없어야 마땅하다. | **물대동산**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5.10.18. 청년부 오시품끼(오후시간에 품공동체가 끼니를 함께하는 시간)



2025.10.19. / 11.30. 쪽방나눔선교



2025.10.20.~22. 2025년 부흥 사경회 강사: 허원구 목사



2025.10.23. 장로원로회 야외예배 /울산대왕암





2025.10.26. 제40회 경북노회 교회학교 영아유아유치부 가을종합발표회 입상자 발표



2025.11.06. 동산무지개학교 및 장년부 야유회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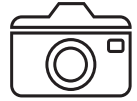


2025.11.02. 순 헌신예배



2025.11.09. 이필행 목사 고별설교 & 환송회





2025.11.06. 이교욱 선교사 선교모범인상 수상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25.11.16. 추수감사주일



2025.11.16.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2025.11.23. 청년부 헌신예배





제16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본회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전시 작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와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1부 / 환영 및 식사

2부 / 예배

양동 순교로 목사(장로교회)와 합동 예배

3부 / 음악회(양동 순회)

1. 양동 순회

2. 노래방 가요 합창

3. 춤

4. 태권방학

5. 노래방 가요 합창

6. 새봄 노래방

7. 태권방학

8. 춤

9. 노래방 가요 합창

10. 양동 순회

11. 양동 순회

12. 양동 순회

13. 양동 순회

14. 양동 순회

15. 양동 순회

16. 양동 순회

17. 양동 순회

유치원 교습(1)~(4)

노래방 교습(1)~(4)

춤 교습(1)~(4)

태권 교습(1)~(4)

노래방 교습(1)~(4)

노래방 교습(1)~(4)

태권 교습(1)~(4)

춤 교습(1)~(4)

노래방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유치원 교습(1)~(4)

양동 순회

노래방 가요

춤

태권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요

태권

춤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요

태권

춤

노래방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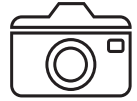
노래방 가요

태권

춤

노래방 가요





2025.12.14. 2025년 선교사·향존직 은퇴(추대) 및 임직예식



선교사은퇴: 이교욱 신재명 김정근 백향숙



장로은퇴: 임병규 이문희 강이철 이준옥



안수집사은퇴: 김광연 김남철 배상태 최진술 허윤열



권사은퇴: 박연우 김경화B 박성순 송은화 이순애 류경숙 김을년 이송애
김춘례 채종수 최정혜 이인혜 홍순남



장로장립: 윤석구 최호진 김철우A 손웅기 홍정우 장순기 이금환
한신희 이상녕 박문호



안수집사안수: 이승근 표동철 한성욱 임병찬 서순범 박창현 우동찬 이상원A
정찬우 송차용 김진철 박동진 권정훈 김상민 진시흥



권사안수: 우말련 고경희 하지연 김경원 이경옥D 최순남 정은희
이성희B 김영숙B 이정미 류호자 박선미 배정은 홍태자
이영애 윤지영 곽명희 박수경B 정현진 최신애



명예권사추대: 김경자 이혜경 권경아 이정임 박수경C
권사취임: 최선화



2025.12.21. 아동세례



석정안 성혜나



배지우 조은효



우승현 우장한/이혜리



2025.12.21. 유아세례



최서윤 최원석/임성원



배이연 배정진/이민정



배이레 배정민/황슬기



심지민 심규민/김지영



2025.12.21. 유아세례



윤다니엘 신예덴 / 윤효정



노연우 노요섭 / 박의정



구한솔 구주환 / 한보라



권세인 권영수 / 박수연



정재이 정경태 / 김정혜



윤희나 은정용 / 배라영



최준혁 최영훈 / 김다혜



이성희 이상민 / 정민지



권선우 권영수 / 박수연



이도진 유원민



2025.12.21. 성탄축하발표회



최예준 어린이

김세인 어린이



최윤정 집사

김지온 어린이



유아부
기쁜 이 날, 크리스마스 노래



유치부
빛이 오신다



영아부
아기예수 오신 거룩한 밤



초등부
위대한 이야기



초등2,3부
너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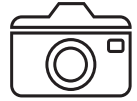
중등부
Joyful Joyful



고등부
저들 밖에 한밤 중에



김준호 목사



2026.01.01. 새해맞이에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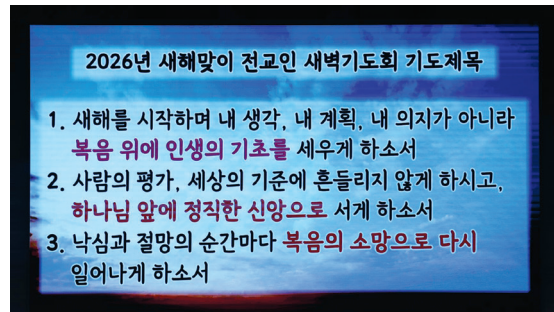
2026.01.04. 제직수련회



2026.01.08. 시무권사회 신년 월례회



2026.01.05.~10.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회



2026.01.11. 손명락, 홍두석 선교사 선교보고





2026.01.11. 의료선교부 진랑벤엘교회 이주민 봉사



2026.01.17. 성찬식 준비



2026.01.18. 성찬식



2026.01.18. 여전도회 헌신예배



2026.01.18. 교직원 신년교례회



2026.01.18. 목사·장로 신년교례회





2026.02.08. 대구제일교회 김준호 목사 위임예식



인 도: **안재근** 목사 (경북교회 서기 / 백학교회)
 기 도: **황병국** 장로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 / 하늘소망교회)
 성경봉독: **최대진** 목사 (경북교회 제1시찰장 / 성동교회) / 출애굽기 3장 1~5절
 설교/축도: **김운용**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제22대 총장) / 그대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집례: 위임국장 **송영중** 목사 (경북교회장 / 복된교회)
 축가: 바리튼 **제상철**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운영)
 권면: **신경희** 목사 (직전 경북교회장 / 동지교회)
 축사: **이성희** 목사 (증경 총회장 / 연동교회 원로목사)



김준호 목사 인사말



김준호 목사 위임예식 영상 스케치 1



김준호 목사 위임예식 영상 스케치 2

편집후기

물댄동산 111호에 함께할 수 있음에 주님께 깊은 감사와, 부원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여호와 살롬! - 황천호

장로 임직 후 첫 사명으로 홍보 출판부를 맡아 '물댄동산'을 발간하게 되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무진, 이주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가 푸른 생명력 가득한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 홍정우

111호 물댄동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부원들과 원고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읽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 이상원A

바쁜 신 중에도 원고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보 부원분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박수영

물댄동산 발간에 저의 작디작은 노력을 보탬 수 있어서 기쁩니다. - 김미진

붉은 말 처럼 2026년에도 물댄동산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 박현아

2026년 첫 물댄동산을 무리없이 잘 발간하게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정우 장로님이 부장으로 오신 후 첫 발간인데 부원들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아 또한 기쁘네요. - 최무진

물댄동산에서의 이야기가 상처의 흉터가 아니라 향기나는 꽃자리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심터가 되었는지 말합니다. - 이주하

물댄동산이 생수가 되어 제일의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모두가 기다리는 매 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글과 홍보부원들의 사랑의 수고로 111호가 탄생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이영숙

세월 속에 살아감을 늘 감사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 박효운

이 글들이 모두에게 작은 은혜와 조용한 힘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 양선미

여러 글과 삶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이우형

대구제일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라도 함께 남을 수 있음 이 영광입니다. - 박지예

물댄동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안주현

작년 가을부터 이번 봄까지 여러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모저모를 세세하게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정리하여 대구제일교회의 역사를 남길 수 있어 참 뿌듯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지현



25.10.02. 김유찬 첫 출석 (부: 김효준, 모: 주유화)



25.11.09. 최서윤 첫 출석 (부: 최원석, 모: 임성은)



25.12.28. 권세인 첫 출석 (부: 권영수, 모: 박수연)



지도목사 황천호 편집위원 박수영, 박지예, 김원진 전 화 (053) 253-2615 ~ 7
부 장 홍정우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팩 스 (053) 253-2618
부 부 장 이상원A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총 무 박수영 허균열 102길 50 (동산동)
회 계 김미진 사 진 박효윤, 이정구 발 행 일 2026. 02. 22.
서 기 박현아 편집제작 안지현 홈페이지 www.firstch.org
발 행 처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이 메 일 fch_pub@naver.com

-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물댄동산에 게재된 글은 대구제일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물댄동산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예배실
구 역 장 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3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 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12 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6년 5월 23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 또는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한글(워드)파일**로 원고를 준비해주시고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 표어 |

사랑으로 교회를 새움게! 세상을 아름답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 공동체**
믿음의 유산을 **잇는 공동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